

서울시복지재단 2013-34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 연구



연구진

연구 책임 이 서 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연구원)

자문위원

김 경 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동 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경 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성 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팀장)
신 은 경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무위원

김 정 훈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이 상 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 선 이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장 애 란 (동천의 집 원장)

요 약

제 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연구 필요성

-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가 출범됨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거주시설에 있는 자립희망 장애인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단계의 서비스임
- 장애인전환서비스 시행 4~5년차에 접어들자,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과연 본 서비스는 그 목적과 목표에 상응하게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화하면 서비스 목표 증진에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서울시 전환서비스의 목적과 목표, 이에 따른 성과 모형을 구체화하여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 향후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전환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과정 평가가 될 것임

2. 연구내용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모형 구축

- 성과는 투입과 활동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성과모형이 필요함

- 서비스 목적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기반으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모형을 구축함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척도(자립역량척도) 및 면접지 개발
 - 성과모형에 기반을 두고 이를 구체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척도를 개발함
 - 자립역량척도는 크게 개인적 자립역량과 사회적 자립역량으로 구분됨
 - 개인적 자립역량에는 3개의 구성개념(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이 있으며, 사회적 자립역량에는 2개의 구성개념(관계망 형성 및 확대,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이 있음
 - 5개의 구성개념은 각 2개씩의 하위개념을 가져 총 10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고, 개별 하위개념은 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40문항의 척도임
 - 자립역량척도의 측정 영역은 인지·지식·기술적 측면과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됨. 개인 내적인 변화를 계량화하여 일회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 때문에 심리적 영역은 제외함
 - 질적인 성과 및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는 비구조화 면접을 통해 보완함
 - 비구조화 면접지는 서비스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및 성과 영향요인, 이용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됨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및 발전방안 제시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 전수 79명(2013년 6월 기준)과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척도를 측정함
 - 서비스 이용 후 나타난 변화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측정값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실험설계를 도입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함
 -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자립역량 증대효과 및 서비스 전환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 효과 등을 입증함

- 자립역량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면접을 통해 보완하여 전환서비스의 성과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함. 주로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른 자립생활의 주요 이념과 가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와 자립생활과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에 대하여 살펴봄
- 자립생활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자립생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여러 선행연구에 대하여도 검토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 자문위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질적 연구방법, 척도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4명의 교수진으로 구성하였음. 자문위원은 네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한 차례의 심사분석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자립역량척도 타당도 심사, 성과 분석 내용의 검수 등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전반의 질적 제고에 기여함
- 실무위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자립역량척도의 현실성 향상 방향 및 장애인전환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설문 조사 및 양적 자료 분석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를 장애인 119명을 대상(서비스 이용자 79명, 시설거주자 40명)으로 측정함
- 자립역량 측정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의 표본이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집단 간 자립역량 차이 및 전환서비스의 자립역

량 증대효과를 분석함)

■ 면접 조사 및 질적 자료 분석

- 본 연구의 면접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구성은 전환서비스 이용자 15명, 이용 이후 자립한 2명, 서비스 관리자 및 이용자 가족 3명임
- 질적 자료의 분석은 인터뷰 녹음에 기반을 둔 녹취록과 메모를 바탕으로 초벌 분석을 하였고, 이후 심층 분석을 실시함

4. 연구추진과정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함

- 방침을 수립하기 전에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구성된 임시 안으로 학계 전문가의 사전 자문 및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내용 및 범위를 논의함
- 연구방침을 수립한 이후에는 자문 · 실무회의와 재단 내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성과 모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도구를 개발함
- 자립역량척도의 측정을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양적 성과를 분석함
- 양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구조화 면접지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질적 성과 및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함

1) 본 분석에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만-위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모수통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의 표본이 매우 적어 모집단의 정규성 및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및 면접지 개발

1. 이론적 배경

■ 자립생활운동

-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흑인인권운동, 여성운동 등의 자유주의와 진보적 이념들이 자리 잡은 미국 토양에서 비롯됨
-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는 것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수집단의 차별과 같이 다수가 아닌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소수집단 모델(minority model)로써 접근함
- 즉,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여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성공이나 실패도 그들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이념이자 운동임
- 자립생활운동으로부터 야기된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결함 또는 결핍으로 가정한 재활패러다임과는 상이한 접근을 시도함.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의 장애는 불합리한 사회 환경과 구조로 인한 기회의 부족을 장애로 정의하고, 사회구조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음(박수경, 2006)
- 자립생활모델은 장애인 당사자 주의,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 sovereignty), 자조자립(self-reliance/ self-help),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양숙미, 2001 재인용)

■ 자립생활 구성요소

- Nosek(1998)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신체적 자율성',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인식', '심리적 자기의존',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함
- '신체적 자율성'은 독립된 신변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함
-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자립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자기의존 능력'을 필요로 함

- 장애인 당사자주의 및 사용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인식 능력'도 자립생활 구성요소임
 -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차별을 초래하는 사회제도 등의 환경변화가 있어야만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양숙미, 2001) '환경적 자원'이 포함됨
- 자립생활 성과 영향요인
- 장애인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성취를 통해 삶의 강한 의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정은주, 1998),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며(나동석, 1992),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짐
 - 장애인식은 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한국의 장애인들은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변화되고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삶과 환경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력과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및 자신감이 증대되고(김경미, 2005),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도 자립생활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박영국, 2010) 점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선행 조건 중 하나임
 -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증진되는 장애인의 역량은 지역사회 참여를 완전 매개한다는 이익섭 외 2인(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역량강화 역시 지역사회 자립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음
- 자립생활 관련 측정도구
- 미국의 National Independent Living Skills(NILS)의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는 건강과 위생, 가족에 대한 책임, 금전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등 7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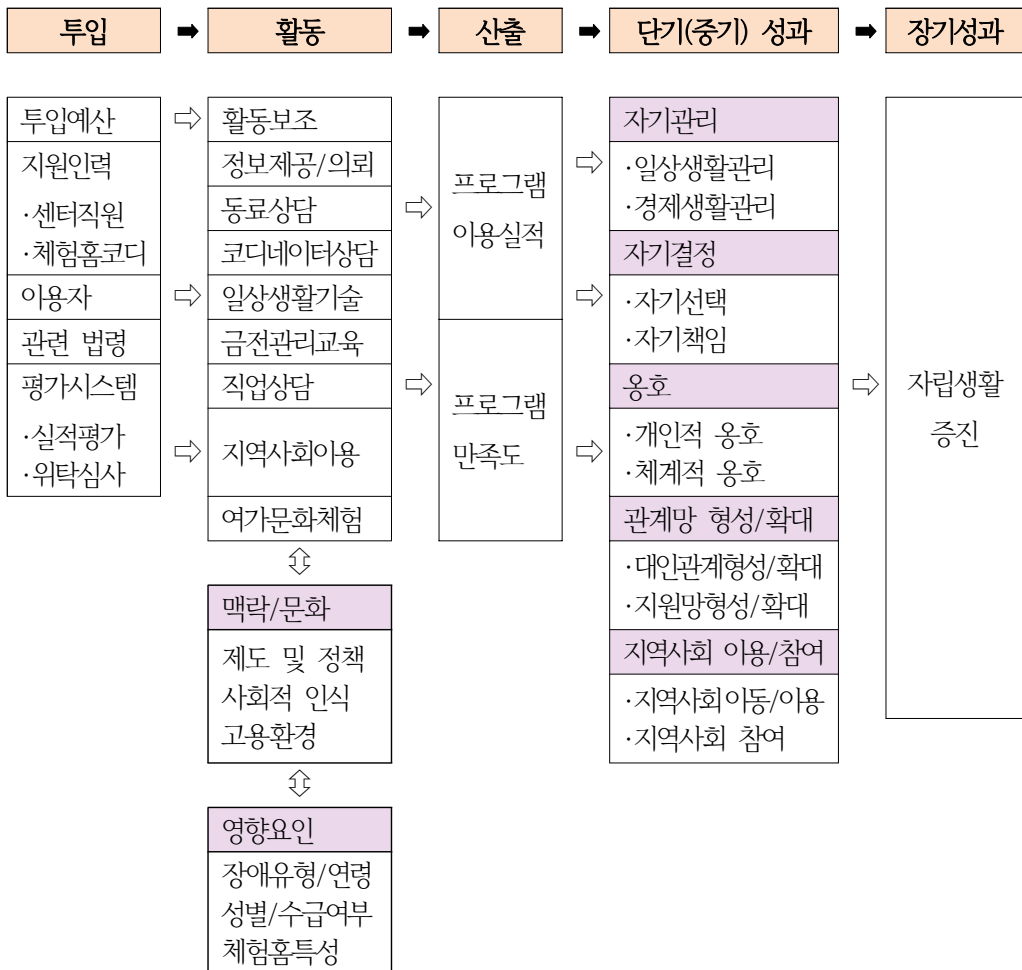
영역이 포함되는데(Dunlap et al, 2005), 영역별 문항수가 평균 130개를 육박하여 매우 방대한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에 기반을 두었다기 보다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활동) 혹은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음(윤재영, 2010)

-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에서 개발한 ‘자립생활에 대한 자가평가도구’도 자립생활기술훈련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욕구와 성과를 판정하기 위해 제작된 지표임(박경수 외 5인, 2011 재인용)
- 일본의 휴먼케어협회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에서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3개 영역(총 29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평정을 재구조화함. 그러나 항목선정기준과 자립생활의 구성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김동기, 2005), 타당도와 신뢰도의 한계가 있음
- 윤재영(2010)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창하는 자립생활의 개념을 강조하여 자기결정, 역량강화, 관계, 생산성, 사회 환경의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실증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체를 도출하여 우리 형편과 이해에 맞는 자립생활척도를 개발함
- 이외에도 자기결정기술척도, 적응행동 성취도, 지역사회 적응검사 등의 평가도구처럼 자립생활을 구성하는 부분적 개념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도 있으며, 기능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도 있음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모형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증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자립역량강화임
 - 첫째,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있어서 자기관리하기

- 둘째, 자기결정권을 알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실천하기
- 셋째,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기
- 넷째, 대인관계 및 지원망을 형성하고 확대하기
- 다섯째, 지역사회를 이동하고 이용하며 참여하기
- 성과 모형의 준거 틀로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전 과정 및 성과모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모형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개발

○ 척도 방향성

-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법을 선택함
-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전반에 초점을 맞춤. 장애인의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사회 환경 및 구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영역은 본 서비스를 통한 성과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제외함
-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역량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함. 현재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장애유형에 따라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과개념은 동일하되 표현에만 차이를 둠
- 서비스 성과 중 심리내적 역량변화는 제외함. 계량화된 지표로 일시적인 측정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의지 등의 심리내적인 변화 측정의 한계로 심리적 성과는 면접을 통해 검증하도록 함
- 자립역량척도는 전환서비스 성과지표를 기술 · 인지 · 지식 차원의 단기 성과지표와 행동적 차원의 중기 성과지표로 구분함
- 지적장애인도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30~40문항 내로 구성함

○ 척도 구성 내용

-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짐. 개인적 자립역량은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라는 3개의 구성개념으로, 사회적 자립역량은 관계망 형성 및 확대,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라는 2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짐
- 척도 구성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지표는 본문 및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표 1〉 자립역량척도의 구성

내용	구성개념	하위개념	문항	단기	중기
개인적 자립역량 (24)	자기관리	일상생활관리	4	2	2
		경제생활관리	4	2	2
	자기결정	자기선택	4	2	2
		자기책임	4	2	2
	옹호	개인적 옹호	4	2	2
		체계적 옹호	4	2	2
사회적 자립역량 (16)	관계망 형성 및 확대	대인관계 형성 및 확대	4	2	2
		지원망 형성 및 확대	4	2	2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	지역사회 이동 및 이용	4	2	2
		지역사회 참여	4	2	2
		전체	40	20	20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의 신뢰도²⁾는 다음의 〈표2〉와 같음. 총 10개의 하위개념 중에 내적 일관성이 바람직한 수준(0.7) 이상이 6개이며, 나머지 4개의 하위개념도 0.6 이상으로 척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구성개념 단위로 추정을 했을 시에는 5개 개념 모두에서 0.7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자립역량척도의 타당도는 4명의 장애인 전문가(자문위원 · 교수)의 평가에 따른 수정 · 보완작업을 통해 액면 및 내용타당도만을 확보하였음

2) 자립역량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로 추정하였으며,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전수 79명(2013년 6월 기준)과 비교집단으로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뢰도임을 밝힌다. 사례수가 보다 많이 표집 된다면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자립역량척도의 신뢰도

내용	구성개념	Cronbach'α	하위개념	Cronbach'α	항목수
개인적 자립역량 (24)	자기관리	.763	일상생활관리	.702	4
			경제생활관리	.666	4
	자기결정	.881	자기선택	.782	4
			자기책임	.813	4
	옹호	.787	개인적 옹호	.716	4
			체계적 옹호	.636	4
사회적 자립역량 (16)	관계망 형성 및 확대	.841	대인관계 형성 및 확대	.771	4
			지원망 형성 및 확대	.673	4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	.794	지역사회 이동 및 이용	.762	4
			지역사회 참여	.696	4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면접지

■ 면접지 방향성

- 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에서 배제했던 심리적 성과 부분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 발전방안이 주요 구성 내용임
- 면접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성상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만남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함

■ 면접지 구성 내용

- 면접을 위한 비구조화된 면접지는 크게 다음의 〈표 3〉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표 3〉 면접지 구성

순서	주 제	내 용
①	가벼운 인사	- 날씨, 건강, 기분 등
②	환기	- 체험홈 이전 생활 - 체험홈 알게 된 계기 - 체험홈 거주 선택 이유 - 만족정도 (시설 친구에 추천여부 등)
③	전환서비스 성과 (변화 등)	i) 하루 일과 ii) 구체적 상황 혹은 경험 〈외적 차원〉 - 문제해결 혹은 대응(위기상황 등) - 자기생각 자기결정 우선순위 선정 - 의사표현 〈내적 차원〉 - 긍정 : 주체의식, 자신감, 책임감, 소속감, 자긍심 - 부정 : 무기력감, 두려움 등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이란]
④	전환서비스 성과 영향요인	- 가족과의 관계 - 시설담당자와의 관계 - 취업(고용) 및 사회참여 정도 - 개인의 특성(성격, 장애수용 및 태도) - 제도 및 환경
⑤	전환 서비스	체험홈 - 기간의 적절성 - 서비스 보완사항 가정 - 체험홈과 가정의 차이점 - 두 서비스의 장단점
⑥	마무리	- 감사인사 및 지급내역서 작성

제 3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양적 성과 측정 및 분석

1. 측정 개요

■ 측정대상 및 기간

- 자립역량척도의 측정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 전수인 79명(2013년 7월 기준)과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으로 총 119명임
-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를 보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탈 시설했을 때의 초기 역량수준과 이용 이후의 역량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초기 측정값(baseline value)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전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집단과의 자립역량 차이를 비교함
- 비교집단의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함. 첫째,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기능 수준이 매우 떨어져 지역사회자립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하며, 당사자가 직접 척도를 읽고 체크할 수 있는 대상을 위주로 구성함. 둘째, 장애유형은 동일한 비율로 섭외함
- 2013년 6월 19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3주에 걸쳐 측정 자료를 수집함

■ 측정 및 분석방법

- 자립역량척도는 장애인 당사자용이나,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인지 및 행동 차원의 문항이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혼돈가능성이 있음. 이에 자립역량척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측정의 도움을 요청함
- 수집된 양적 자료의 분석은 두 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검증³⁾함으로써 집단 간 자립역량의 차이 및 전환서비스의 자립역량 강화효과를 분석함

3)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모수통계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 중 하나인 만-위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2.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 장애유형

- 시설과 자립생활체험홈은 장애유형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체험홈의 과정을 마치고 이동하게 되는 자립생활가정에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약 15% 포인트 높음

〈표 4〉 분석대상의 장애유형

서비스유형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체	지적	지체	지적	지체	지적
인원 수(%)	20 (50)	20 (50)	26 (49.1)	27 (50.9)	15 (57.7)	11 (42.3)
소계(%)	40 (100)		53 (100)		26 (100)	

■ 장애등급

- 세 집단 모두 1급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시설거주 집단의 1·2급 장애인 비율이 97%에 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5〉 분석대상의 장애등급

전환서비스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1급	24(60)	29(54.7)	21(80.8)
2급	15(37.5)	13(24.5)	1(3.8)
3급	1(2.5)	10(18.9)	4(15.4)
기타	-	1(1.9)	-
소계(%)	40 (100)	53 (100)	26 (100)

4) 복합장애 혹은 지체장애일지라도 지적능력이 낮아 '지적장애인용 자립역량척도'를 사용한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한다.

■ 연령 및 성별

-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시설거주 집단에 비해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20-30대 비율이 10~20% 포인트 가량 높다는 점에서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6〉 분석대상의 연령대

전환서비스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20대	9(22.5)	25(47.2)	11(42.3)
30대	14(35.0)	17(32.1)	7(26.9)
40대	3(7.5)	7(13.2)	2(7.7)
50대	8(20.0)	3(5.7)	4(15.4)
60대	6(15.0)	1(1.9)	2(7.7)
소계(%)	40 (100)	53 (100)	26 (100)

- 분석대상의 성별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

〈표 7〉 분석대상의 성별

전환서비스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남자	26(65.0)	39(73.6)	16(61.5)
여자	14(35.0)	14(26.4)	10(38.5)
소계(%)	40 (100)	53 (100)	26 (100)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79명)의 자립역량과 비교집단인 시설거주 장애인(40명)의 자립역량을 비교함으로써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검증함
 - 자립역량척도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역량이 시설 거주 집단의 역량보다 높고 편차가 작으며, 중위수도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값이 높음(p.47 참조)
 - 분석 결과,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자립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표 8>이 보여줌

〈표 8〉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영역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553.500	704.500	912.000	1012.000	631.000
유의확률	.000***	.000***	.000***	.001***	.000***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자립역량수준이 비교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역량이 증대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임. 즉,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이용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전환서비스의 자립역량 증대효과임
- 장애유형별 자립역량 증대효과
 -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 집단(41명)의 자립역량과 비교집단인 시설거주 지체장애인(20명),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적장애인 집단(38명)과 비교집단인 시설거주 지적장애인(20명)의 자립역량을 비교함으로써 장애유형별로 자립역량 증

대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

-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자립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높았으며, 작은 편차와 높은 중위값을 가짐.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끼리 비교했을 때는 지체장애인 집단의 평균이 지적장애인의 값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 분석 결과,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지체장애인 집단의 자립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다름을 <표 9>를 통해 알 수 있음.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자립역량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표 10> 참고)

<표 9>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지체장애인)

영역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121.500	186.000	234.00	176.000	204.50
유의확률	.000***	.000***	.007**	.000***	.002**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지체장애인의 자립역량 증대효과가 보다 가시적이며,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대' 영역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지체장애인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정신적·사회적 자립, 사회적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유영준 외 2인(2008)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함

<표 10>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지적장애인)

영역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151.500	169.000	218.00	330.00	129.50
유의확률	.000***	.001***	.008**	.410	.000***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용자의 자립역량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함
 - 전환서비스별(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측정결과 는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 자립생활 가정 이용자 집단의 역량이 높고 편차가 작으며 높은 중위값을 가짐
 - 분석 결과, 자립생활체험홈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집단은 ‘자기관리’와 ‘자기결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립역량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11〉 참고)

〈표 11〉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검증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526.50	445.50	543.00	533.00	570.00
유의확률	.085 [^]	.010 ^{**}	.125	.100	.213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그러나 자립생활가정이 다섯 가지 자립역량 중 ‘자기관리’와 ‘자기결정’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환서비스 진행에 따른 자립역량이 강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이용자 특성 등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결과 라는 점에서 전환서비스 진행에 따라 자립역량이 강화되어 나타난 효과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자립역량이 높은 이용자들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전을 해서 나타 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해석은 다음과 같음. 전환서비스 진행 및 이 동(체험홈 ⇨ 자립생활가정)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에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 로 인한 정적 혹은 부적 강화효과가 섞여 있을 수 있으나, 전환서비스 진행에 따 른 역량강화효과는 일정 부분 입증되었음

-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비교
 - 서비스 이용집단별로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을 비교해봄으로써 서비스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역량수준이 단기 뿐 아니라 중기에서도 높고, 편차도 작으며, 높은 중위수를 가짐
 - 분석결과, 체험홈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집단의 단기 및 중기 자립역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12〉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검증

영역	단기 자립역량	중기 자립역량
집단 통계값	453.500	526.500
유의확률	.014*	.089 [^]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두 집단 모두에서 단기 자립역량의 점수가 중기 자립역량에 비해 높다는 점은 표출되는 행동에 앞서 인지나 지식차원의 변화가 먼저 진행됨을 입증한 것임
- 행동으로 표출되는 중기 자립역량에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체험홈에서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이나 지식이 바로 행동적인 변화나 성과로 나타나기보다 자율적인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줌. 인지 · 기술 · 지식 차원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단기 자립역량도 서비스 전환 및 이동에 따라 강화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5.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환서비스 이용자를 1년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함
 -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높고, 편차가 작으며, 높거나 같은 중위값을 가짐
 -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인정하는 영역은 ‘자기관리’ 역량뿐임

〈표 13〉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차이검증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532.50	698.00	671.00	672.50	658.50
유의확률	.026*	.582	.416	.422	.348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전환서비스 전환 및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 효과에 비해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는 그 영역이 감소함.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분류한 두 집단에 통제되지 않았으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됨
-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비교
 -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향상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의 역량수준이 단기 뿐 아니라 중기에서도 높고, 편차도 작으며, 높은 중위수를 가짐
 - 분석 결과, 두 집단의 단기 및 중기 자립역량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14〉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차이검증

영역	단기 자립역량	중기 자립역량
집단 통계값	623.500	640.500
유의확률	.198	.265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명확한데 비해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검증된 이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임

6. 소결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자립역량 증대효과
 - 전환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는 입증되었음. 특히, 지체장애인의 자립역량 증대효과가 보다 가시적이었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역량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환서비스의 순차적 이동 및 진행에 따라 집단 간 자립역량에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반해 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함
 - 이와 같은 차이를 야기한 주요 변인은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중 체험홈 이용자'인 22명인 것으로 보이며, 22명의 장애 구성을 보면 63% 이상이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음

〈표 15〉 이용기간별 전환서비스 이용자 분류

구분(명)	체험홈	가정
1년 미만 서비스 이용자	31	1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22	25
전체	53	26

- 지역사회 적응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적장애인이 체험홈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고, 지역사회 적응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체장애인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두 분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표 16〉 체험홈 이용기간별 장애유형 분류

구분(명)	지체	지적	전체
1년 이하 서비스 이용자	18	13	31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8	14	22
전체	26	27	53

- 즉, 전환서비스별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별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장애유형과 등급 등 통제되지 않은 변인이 야기하는 정적 혹은 부적 강화효과가 섞여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변인에 대한 통제 없이 이루어진 개략적인 분석에도 ‘자기관리’와 ‘자기결정’ 영역에서 차별을 보였다는 점은 서비스 이용기간 및 전환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가 엄연히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집단별 장애유형 및 등급이 통제된 상황에서 추가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이용기간 및 전환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가 보다 가시적일 것임

제 4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질적 성과 측정 및 분석

1. 측정 개요

■ 면접 대상 및 기간

- 본 연구의 면접 대상은 총 20명으로 전환서비스 이용자 15명(자립생활체험홈 8명, 자립생활가정 7명), 전환서비스 이용 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2명, 체험홈 관리자 2명, 이용자 가족 1명으로 구성됨
- 면접은 2013년 8월 19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원 2명과 함께 진행함

■ 측정 및 분석방법

- 최소 1~2주 전에 전화상으로 사전 섭외를 한 후, 면접 대상자의 자택이나 인근 장소로 방문하여 실시함.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바탕으로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면접을 진행하되, 연구에 필요한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실시함
- 면접을 통해 구축한 수많은 질적 자료의 분석은 면접 녹음내용의 녹취에서부터 시작함. 이를 통해 구축된 수많은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작업을 거침. 이후 중요한 의미를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의미, 주제에 이름을 부여하고 분류하는 작업인 초별분석을 실시함. 마지막 과정은 심층 분석으로 초별분석 자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응집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 다음의 내용분석과 발전방안이 도출됨

2. 면접 내용분석 : 질적 성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⁵⁾

■ 자립생활체험홈 성과 및 문제점

○ 자립생활체험홈 필요성에 대한 공감

- 시설에서 체험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립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 자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임. 전환서비스 1단계인 체험홈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체험홈은 시설에서의 삶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을 유연하게 이어주기 위한 중간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음

○ 자립생활체험홈 성과

- 시설에 거주했을 때와 비교해서 자립생활체험홈을 이용한 이후에 따라 나타난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임. 8가지로 분류된 자립생활체험홈의 성과는 심리내적변화인 ‘자신감, 자립의지,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부분은 자립역량척도⁶⁾의 측정영역에 속하지 않는 질적 성과에 해당하며, 이것 이외의 성과는 자립역량척도의 측정범위에 해당함

〈표 17〉 자립생활체험홈 성과

개인 내적 (심리적) 역량변화	1	자신감 획득	2	자립의지 향상
	3	자존감 향상	4	삶의 만족도 증대
개인 외적 및 사회적 역량변화	1	대인관계 확장	2	취업욕구 증대
	3	자기표현 증대	4	일상생활능력 향상

5) 인용한 인터뷰 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에서는 생략하며, 본문의 p.71~108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양적 척도인 자립역량척도에서는 측정대상인 장애인의 특성상 심리 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행동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본문의 제2장 참고). 심리 내적인 부분에 대한 양적 측정은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성과에 대한 측정은 면접을 통한 질적인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 자립생활체험홈 문제점

- 자립생활체험홈의 불편한(했던) 점, 아쉬운(웠던) 점 등의 질문형식에 대한 응답 내용임. 자립생활체험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룸메이트·활동보조·체험홈 코디네이터 등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정리될 수도 있음. 코디네이터와의 갈등은 체험홈 운영상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함

〈표 18〉 자립생활체험홈 문제점

<p>룸메이트와의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홈은 한 주택에 2~3명의 룸메이트가 함께 거주하는 체제인데,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의 성격이나 장애유형 등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함 · 때로 룸메이트와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심신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함
<p>활동보조와의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측면에서 활동보조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함 · 갈등 원인은 주로 지나친 간섭, 구속, 기싸움 등임 · 반면 이용자와 활동보조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 적절한 지지체계로 작용하기도 함
<p>체험홈 운영 형태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운영사업자 및 코디네이터의 성향에 따라 '방임과 개입' 사이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 · 지나친 방임 혹은 지나친 개입이 문제를 야기함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표준화된 기준 부재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전환서비스의 운영이 이용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자립생활가정 성과 및 문제점

○ 자립생활가정 성과

- 자립생활체험홈을 거친 후에는 지역사회 자립에 보다 가까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함. 이하의 내용은 자립생활가정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체험
홈에서와 달리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 한 뒤에 나타난 추가적 변화’에 대한 응
답 내용임

〈표 19〉 자립생활가정 성과

개인 내적 (심리적) 역량변화	1	자신감 획득	2	자기통제감 형성
	3	체험홈 갈등 해소로 인한 심신안정		
개인 외적 및 사회적 역량변화	1	대인관계 확장		

- 자립생활가정 문제점
 - 자립생활가정의 문제점은 ‘현재 자립생활가정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 보완 했으면 하는 점’과 더불어 자립생활가정의 서비스 목표에 이용자의 생각에 대한 답변 내용에 해당함

〈표 20〉 자립생활가정 문제점

명확한 목표의 부재	· 현재의 자립생활가정은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보다 부수적 역할인 주거지 제공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사후관리시스템의 부재	· 자립생활가정이 체험홈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가 허용되기는 하나, 코디네이터의 꾸준한 관심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체계임 ·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환서비스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두려움을 느낌
적절하지 못한 거주환경	· 반지하 주택이라 곰팡이가 슬거나, 물이 새기도 하며, 주택 구조상 방 크기의 심한 격차로 이용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

- 지역사회 자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립역량’

〈표 21〉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

개인내적(심리적) 자립역량	· 자신감	· 용기	· 자립의지
개인(외)적 자립역량	· 경제생활관리능력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로 측정된 영역과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은 매우 유사함. 이는 곧 장애인전환서비스가 그 목표인 ‘장애인 자립역량 증진’을 실현하고 있음을 입증함

■ 성과 영향 요인

- 지지체계 형성 여부
 - 일반적으로 적절한 지지체계의 형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정은주, 1998),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며(나동석, 1992),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가족과 배우자를 통한 지지가 자신감 형성, 자립의지 고취 등 심리적 차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가족이나 배우자는 항상 적절한 지지체계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해체계로 변모하기도 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침
- 취업여부
 - 근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증가, 경제생활능력 향상에 따른 자아통제감 증가, 대인관계의 확장, 사회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전환서비스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의 연구결과와 김미경(2005)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함
 - 반면 취업을 통한 일정 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근로는 신체적 피로감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함

- 장애유형
 -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전환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적장애와 중도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
 - 지적장애는 강한 자기중심성과 자기통제의 어려움을 그 특성으로 하여 지지체계가 결핍되었을 때 좌절을 쉽게 경험하고 회복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또한 꾸준한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기간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함
 - 중도장애의 경우, 자립욕구는 높으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내적 갈등이 심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발전방안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차원
 -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기간의 융통성 부여
 - 현재는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이용가능기간이 2년, 5년으로 분리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함. 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기간 채우기식으로 체험홈에 머무르거나, 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용기간의 제약에 따라 자립생활가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특히 지적장애인)가 종종 있음
 - 이에 서비스 이용기간은 총 7년으로 확정해 두되, 개별 이용자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이용기간에는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체험홈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체험홈별 차이(방임 혹은 과도한 개입)로 인한 갈등은 운영사업자 및 코디네이터의 성향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개별적 특성이나 상황, 욕구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갈등이기도 함

- 이용자의 장애유형, 수준, 기능, 욕구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자별 1:1 맞춤형으로 계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책으로 체험홈 운영사업자를 평가하는 체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함
- 초기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그 운영내용이나 형태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는 운영사업자 평가 체계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며, 풍부한 예시와 적용의 매뉴얼 제작이 뒷받침되어야함
- 표준화된 서울시 전환서비스 제공
 - 위탁체제로 운영 중인 체험홈의 경우, 운영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커 서울시 전환서비스만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보장도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가 강조하는 핵심적 자립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섭외하여 체험홈에 서비스 파견(월 1회)을 보내는 방법으로 일부 개선될 수 있음
- 성과 강화 프로그램의 도입
 - 서울시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천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지역사회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택 구입에 관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과 자신감 혹은 용기부여를 위한 ‘지역사회에 자립한 선배와의 만남’, 대인관계 형성 및 확대를 위한 ‘체험홈 이용자 간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가 그 내용에 해당함
- 갈등 개선방안 1. 활동보조와의 관계형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활동보조와의 관계 형성 및 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본인 행동 및 선택의 판단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동보조와의 적절한 관계형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갈등 개선방안 2. 코디네이터 및 활동보조 지원
 - 체험홈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전환서비스 이후의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 이후에 지역사회 자립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 역시 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함.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때와는 다르더라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의 형성과 지원은 필요함
- 체험홈 운영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 서울시 자립생활체험홈은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거주환경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면접내용에 따르면 주택구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음. 향후 체험홈 운영사업자 선정 시에는 체험홈 주택환경 및 구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차원

- 행정절차상 자립준비 지원
 - 현재 행정절차상 시설에서 거주할 때에는 활동보조의 신청이 불가능하여 지역사회에 나와 장애재판정을 받고 활동보조 및 수급을 신청하게 됨. 이로 인해 3~6개월 정도 지원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위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임
 - 자립 예정자의 경우, 사전 자립준비기간을 인정하여 행정상 거주지가 시설로 되어있을지라도 1~2달 전에 지원체계의 신청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사전 자립교육의 필수화
 - 자립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사회에 나오으로써 룸메이트와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시설에서는 자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사전 기초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자립 희망자 선정과정에서 허수를 걸러낼 수도 있음
- 수급과 취업의 상쇄 관계 보완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수급 장애인이 안정적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근로임금이 일정수준이상이면 탈 수급을 하게 됨. 근로로 인한 임금 상승분에 따른 수급비 감소 및 추가 병원비를 고려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발생함. 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근로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제도적 구조임
 - 근로임금 증가에 따른 수급비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생략함. 차선으로 현 제도 안에서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대안은 ‘장애인 파트타임 고용의 활성화’라고 보임
- 24시간 응급대기 시스템 마련
 - 장애인 활동보조제도가 운영 중이나, 이로는 24시간 보장이 어려움
 -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책, 즉 응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인식적 차원

-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에 비해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아직 여전해 보임
 - 캠페인, 광고, 드라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인식 개선활동이 필요함

제 5장 제언 및 함의

1. 제언

- 연구결과를 통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함
 -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측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한계를 수용해야 했음. 향후에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층 명확해진 목표와 지향점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야 할 것임. 자립역량척도의 활용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서비스 이용 시점부터 이용자의 자립역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자립역량 변화량을 도출함으로써 서비스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음. 더불어 축적된 측정 자료는 개인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장애유형·성별·장애정도·개인적 특성 등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분석할 때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서비스 성과 증진방안 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환서비스 내 서비스 이동 및 전환의 근거로 자립역량척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현재의 장애인전환서비스는 그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장애유형을 배려한 지원체계로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음. 현재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센터들이 신체장애인의 자립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도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립목표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지적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의 수준이나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여 지적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자립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자립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4장의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중 일부분은 차기년도부터 반

영이 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전환서비스별 이용기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됨. 현재는 자립생활체험홈 2년, 자립생활가정 5년으로 서비스별 이용기간이 한정되는데, 향후에는 전체 서비스 이용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두되 개인별 기능과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즉, 자립생활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1년을 이용하고도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2년을 이용하고도 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용자의 경우, 체험홈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됨. 이는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기간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임. 이외에도 자립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장애재판정, 활동보조 및 수급신청 등) 신청시점의 유연성 확보, 거주지 확보 등의 개선방안에 있어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함의 및 한계

-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유목화를 통해 구체화된 서비스 목적 및 목표에 기반을 두어 성과 개념 및 모형을 도출함에 따라 장애인전환서비스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성과모형에 근거하여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객관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자립역량척도’를 개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본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더불어 향후 서비스 성과측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여가 큼
 - 전환서비스 이용자 및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척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그간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입·퇴거자 현황 등 실적으로 성과를 보였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 평가라고 보임

- 양적인 척도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은 질적인 방법을 통해 보완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심리적 측면에서의 성과 및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한계는 아래와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적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고 액면 및 내용타당도만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엄밀한 의미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의 초기 측정값에 비해 변화량을 살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유사실험설계를 통해 성과를 추정하였음. 향후 보다 정확한 성과추정을 위해 탈시설 시점에서부터 자립역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임
 - 지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척도 제작(그림 등의 활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인전환서비스가 장애유형별로 차등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성과개념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립역량척도에서는 표현에만 차등을 두어 이해의 용이성만을 확보함. 그러나 동일개념을 측정함에도 다양한 도구의 활용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이 되길 기대해 보고자 함

제 1 장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4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모형 개발	4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척도(자립역량척도) 및 면접지 개발	4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및 발전방안 제시	5
3. 연구방법	6
1) 문헌 연구	6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6
3) 설문 조사 및 양적 자료 분석	6
4) 면접 조사 및 질적 자료 분석	7
4. 연구추진과정	8
제 2 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및 면접지 개발	11
1. 이론적 배경	13
1) 자립생활운동	13
2) 자립생활 구성요소	17
3) 자립생활 성과 영향요인	18
4) 자립생활 관련 측정도구	21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 자립역량척도	25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모형	25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개발	28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34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면접지	36
1) 면접지 방향성	36
2) 면접지 구성 내용	36
제 3 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양적 성과 측정 및 분석	41
1. 측정개요	43
1) 측정대상 및 기간	43
2) 측정 및 분석 방법	45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46
1) 장애유형	46
2) 장애등급	46
3) 연령 및 성별	47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49
1)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49
2) 장애유형별 자립역량 증대효과 비교	51
4.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55
1)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55
2)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비교	58
5.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61
1)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61
2)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비교	64
6. 소결	66
제 4 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질적 성과 측정 및 분석	69
1. 측정개요	71

1) 면접대상 및 기간	71
2) 측정 및 분석방법	72
2. 면접 내용분석	74
1) 자립생활체험홈 성과 및 문제점	74
2) 자립생활가정 성과 및 문제점	84
3)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	89
4) 성과 영향 요인	91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발전방안	96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차원	96
2) 서울시 차원	104
3) 인식적 차원	107
제 5 장 결론	109
1) 제언	111
2) 합의 및 한계	113
<참고문헌>	116
<부 록>	121

표차례



〈표 2-1〉 자립생활 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평가	15
〈표 2-2〉 자립생활 관련 척도의 종류	22
〈표 2-3〉 자립역량척도의 구성	30
〈표 2-4〉 자립역량척도의 내용 : 개인적 자립역량	31
〈표 2-5〉 자립역량척도의 내용 : 사회적 자립역량	32
〈표 2-6〉 자립역량척도의 신뢰도	35
〈표 2-7〉 면접지 구성	36
〈표 3-1〉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장애유형 및 운영방식	43
〈표 3-2〉 비교집단의 구성	44
〈표 3-3〉 분석대상의 장애유형	46
〈표 3-4〉 분석대상의 장애등급	47
〈표 3-5〉 분석대상의 연령	47
〈표 3-6〉 분석대상의 성별	48
〈표 3-7〉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립역량 수준	49
〈표 3-8〉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50
〈표 3-9〉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51
〈표 3-10〉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립역량 수준(지체장애인) ...	52
〈표 3-11〉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립역량 수준(지적장애인) ...	52
〈표 3-12〉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지체장애인)	53
〈표 3-13〉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지적장애인)	53
〈표 3-14〉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 구성	55
〈표 3-15〉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	56
〈표 3-16〉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검증	56
〈표 3-17〉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	59

〈표 3-18〉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검증	59
〈표 3-19〉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집단 구분	61
〈표 3-20〉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수준	62
〈표 3-21〉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차이검증	63
〈표 3-22〉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	64
〈표 3-23〉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차이검증	65
〈표 3-24〉 이용기간별 전환서비스 이용자 분류	67
〈표 3-25〉 이용기간별 장애유형 분류	67
〈표 4-1〉 면접 대상	71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8
[그림 2-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모형	27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과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재활 중심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되는 사회적인 환경과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욕구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가 출범되었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거주시설의 자립희망 장애인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적 서비스의 일환이다.

본 서비스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위탁운영체제로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만 4년 정도가 지났다. 전환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체험홈이며, 체험홈 이용 이후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가정이 그것이다. 이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서비스 유예기간을 초과한 대상은 없으며, 서비스 퇴거자 수도 적어 서비스 이용 이후의 지역사회 자립인원이나 자립성공률과 같은 성과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즉, 투입 대비 산출 효과분석에 의거한 단편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4~5년이라는 서비스 제공기간에 비추어봤을 때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이용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화하면 서비스 목표 증진에 보다 효과적일지, 현재 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환서비스의 목적과 목표, 이에 따른 성과 모형을 구체화하여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시설에 거주했을 때에 비해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객관화하여 측정해봄으로써 전환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향후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전환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과정 평가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내용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모형 개발

성과(Outcomes)라 함은 목적 및 목표 달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된 목적과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반면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기 보다 시대환경 및 정책적 추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목적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성과는 이에 대한 투입과 활동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성과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모형을 개발하였다.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척도(자립역량척도) 및 면접지 개발

도출된 성과모형에 기반을 두고 이를 구체화하여 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를 개발하였다. 자립역량척도는 크게 개인적 자립역량과 사회적 자립역량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자립역량은 3개의 구성개념(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으로, 사회적 자립역량은 2개의 구성개념(관계망 형성 및 확대,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으로 이루어졌다. 5개의 구성개념은 각 2개씩의 하위개념을 가지고, 총 10개의 하위개념은 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40문항의 척도가 된다. 자립역량척도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그 측정개념과 내용은 동일하나 표현의 차이로 구분된다.

자립역량척도의 측정 영역에는 인지·지식·기술적 측면과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적 측면으로만 한정하였다. 즉, 이용자의 심리 내적인 부분의 변화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회적인 양적 측정에 한정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한계 때문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영역의 성과는 양적 도구가 아닌 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질적인 성과 측정 및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비구조화 면접지를 개발하였다. 면접지는 서비스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및 성과 영향요인, 이용자가 바라보는

자립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및 발전방안 제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전수 79명(2013년 6월 기준)과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척도를 측정하였다. 시설거주 장애인은 본 연구의 비교집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유사실험설계를 도입한 이유는 개인별 서비스 이용 후 나타난 변화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측정값(baseline value)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시설거주 장애인 집단의 값은 전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탈 시설시의 초기 값으로 상정하고 서비스 효과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자립역량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비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면접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에는 전환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 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퇴거자, 서비스 관리자 및 이용자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역량척도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양적 성과와 면접을 통한 질적 성과에 대한 논의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국내외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주로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른 자립생활의 주요 이념과 가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와 자립생활과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더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구성요소, 영향요인, 자립생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 등에 대하여도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본 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과 실무위원을 구성하였다. 자문위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질적 연구방법, 척도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4명의 교수진으로, 실무위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여 네 차례의 자문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자문위원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자립역량척도 타당도 심사, 성과 분석 내용의 검수 등 연구 전반에 걸쳐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며, 실무위원은 자립역량척도의 현실성 향상방향 및 장애인전환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3. 설문 조사 및 양적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환서비스 이용자 전수인 79명과 비교집단으로 구성된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을 포함하여 총 119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자립역량 측정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의 표본이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⁷⁾함으로써 집단 간 자립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7) 본 분석에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만-위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모수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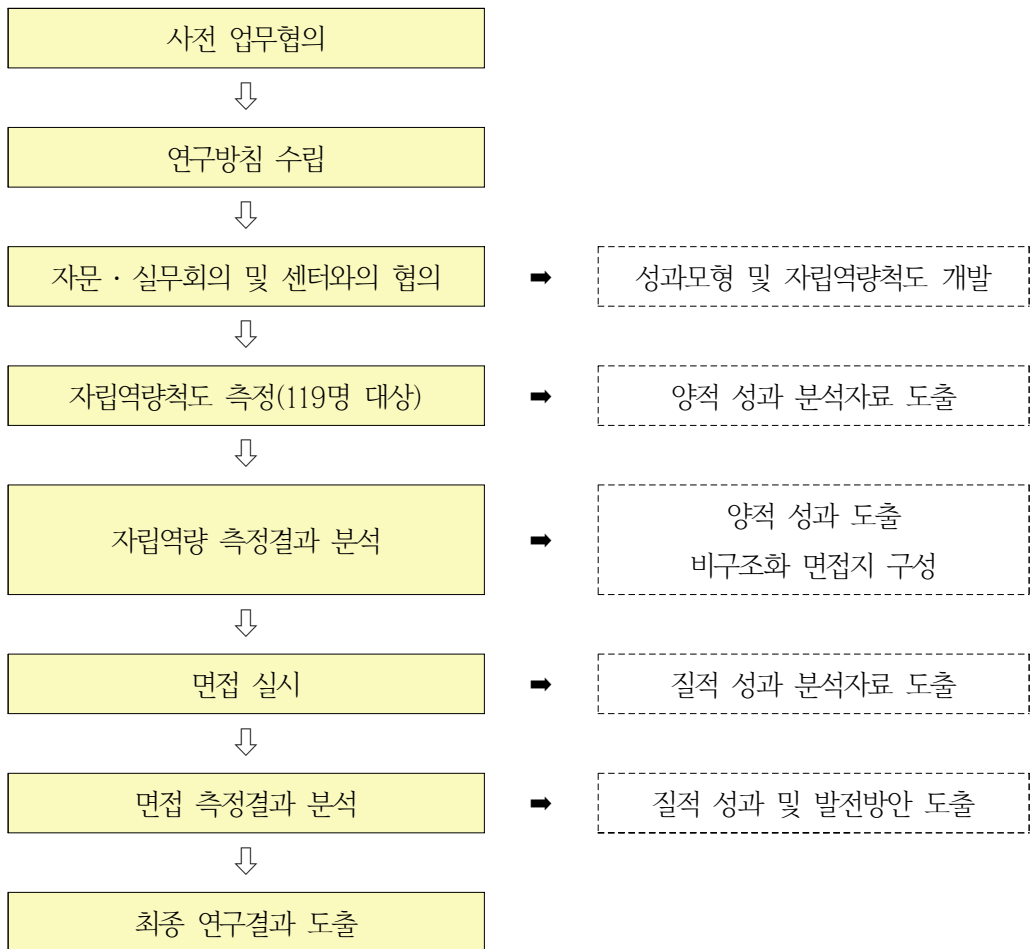
4. 면접 조사 및 질적 자료 분석

면접조사는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구성은 전환서비스 이용자 15명과 이용 후 자립한 2명, 서비스 관리자 및 이용자 가족 3명이다. 면접의 내용은 주로 성과 측정도구(자립역량척도)로 측정하지 못하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질적 성과(심리 내적 변화)와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질적 자료의 분석은 1차적으로 인터뷰 녹음에 기반을 둔 녹취록과 메모를 바탕으로 초별분석을 하였고, 이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의 표본이 매우 적어 모집단의 정규성 및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연구추진과정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먼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구성된 임시 안으로 학계 전문가의 사전 자문 및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연구방침을 수립한 이후에는 자문·실무회의 및 재단 내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성과 모형을 구체화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자립역량척도의 측정을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양적 성과를 분석하였고,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구조화 면접지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질적 성과 및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그림 1-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 연구의 최종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 2 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및 면접지 개발

1. 이론적 배경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면접지

1 이론적 배경

1. 자립생활운동

1) 역사적 배경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으로부터 수차례 입학거부를 당한 후에야 입학한 중증장애인인 에드 로버츠(Ed Roberts)는 병원 의료진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을 해야 했는데, 대학 내에 장애인에 대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생활이 매우 열악했다. 당시 미국 학생운동의 중심지였던 버클리 대학은 에드 로버츠의 생활을 통해 장애인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는 것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수집단의 차별과 같이 다수가 아닌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조건이 비장애인들에게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소수인 장애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 장애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소수집단 모델(minority model)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에드 로버츠와 그의 동료들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존중받아야 할 천부의 권리가 있으며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학교 내에 자립생활센터를 개설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학교 당국, 행정당국과 교섭을 하면서 직접 해결해나갔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에드 로버츠와 동료들은 지역 사회로 나가 자립생활운동을 펼쳤으며, 이것이 자립생활운동의 시작이 되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우주형, 2006).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적 토대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실현이며, 장애인 인권보장과 소비자주권의식의 함양을 가져왔다. 즉, 장애인자립운동의 철학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자기결정, 선택의 자유, 동등한 접근성, 사회에의 의미 있는 참여 등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이 태동한 이유는 여러 사회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흑인인권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 자유주의와 진보적 이념들이 정착해 있어 장애인 인권운동이 싹틀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장애인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시설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탈시설화 운동 등의 사회적 분위기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삼으며, 장애인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성공이나 실패도 그들의 권리로 인정한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은 단순한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인권확보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양식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념이자 운동인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새로운 권리와 자격을 획득하려는 장애인 자신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어,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 장애인 정책 및 실천에 있어 새로운 서비스 전달모델과 조사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1966년 이후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나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를 맞아 지역통합과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이 보급되면서 실질적인 자립생활센터인 휴먼케어협회(Human Care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박형진, 2008).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3년 한국장애인연맹이 「ADA의 충격」이라는 일본 서적을 번역하면서 시작되었다(김경미, 2009 재인용; 이익섭 외 2인, 2007). 이후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고,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와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이념을 확산시켜나갔다(김경혜, 2004).

2) 자립생활패러다임

자립이란 자신이 삶의 중요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등의 개인적 특성을 강조한 용어이다(Gignac et al, 1998). 자립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권을 갖는 것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생활운동으로부터 야기된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장애의 정의와 이에 대한 정책 및 실천과제와는 상이한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박수경, 2006).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결함 또는 결핍으로 가정하는 의료적 접근이나 경제학적 접근을 고수했다.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는 기능적 손상 및 제약이기에 의료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한다. 반면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불합리한 사회 환경과 구조로 인한 기회의 부족을 장애로 정의하고, 소수집단 모형에 근거하여 장애환경을 구성하는 사회구조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현대의 다른 사회운동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표 2-1〉 자립생활 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평가

항목	재활패러다임	자립생활패러다임
문제정의	신체적 손상/직업기술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문제소재	개인	환경, 재활과정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동료, 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 등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 주체	전문가	소비자
추구결과	최대한의 일상생활활동 경제적 자립과 일반고용	자립생활
특징	개인의 비극이론에 기초 개인적 문제, 개인적 치료에 의존 한 재활, 의료적 접근, 전문 집단 에 의한 조정과 관리	정상화이론, 사회적 억압이론, 사회적 문제, 사회적 행동과 조치가 요구됨, 개인 집단적 책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12)

3) 주요 이념과 가치

자립생활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이념과 가치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양숙미, 2001 재인용; 오혜경, 1998; Dejong, 1979; 양옥경·김미옥, 1999).

첫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인데, 이는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인 재활패러다임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자립생활운동의 기본이 되는 철학이다.

둘째,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 sovereignty)이다. 장애인은 서비스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자조자립(self-reliance; self-help)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재량과 자원에 의존한다. 공통의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지지와 연대행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도록 강조한다.

넷째,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수용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출발하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치 절하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대폭적인 재정투입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공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은 역량강화(empowerment)의 지향이다. 장애인의 역량강화는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전제로 변화과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Cowger, 1994).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장애인 당사자 중심, 인권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에 따라 자립생활서비스를 구체화하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자립생활 구성요소

Nosek(1998)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신체적 자율성',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인식', '심리적 자기의존',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신체적 자율성은 독립된 신변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말한다. 만약 장애로 인해 독립된 신변처리가 어렵다면 신체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은 가능해 질 수 있다. 일상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자율성은 크게 일상생활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 일상생활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는 기초적인 생존능력으로서 식사생활과 같은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기능의 수행을 나타낸다.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ADL보다 상위적 개념의 수행능력으로서 일상의 기구나 장비의 사용 등의 능력을 의미한다(오혜경, 2000).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는 자립의지가 필요하다. 자립은 당사자의 심리적 준비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인데,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자립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정신적 능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심리적·의식적 준비상태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자아인식에서 출발해서 본인의 건강관리 등 신변에 대한 인지능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능력에 정서적 자율성, 자기신뢰, 자기주장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결정능력의 하위 내용이다(Nosek, 1998; 김동기 2004).

셋째, 자립생활의 요소는 '자신 삶에 대한 통제(조절) 능력'이다. 자립생활운동에서는 당사자주 의와 사용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타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를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자원을 구하고 활용하는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위기관리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포함된다(Nosek, 1998; 김동기 2004).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요소는 '환경적 자원'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을 초래하

는 사회제도 등의 환경변화가 있어야만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양숙미, 2001). 이것은 개인의 자립생활 목표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주변 건축물, 편의 시설 등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3. 자립생활 성과 영향요인

1) 취업

직업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일 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인 안정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아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래서 직업은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은 개인의 삶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지적 손상으로 인해 실제로 안정된 직업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직업에 있어서 선택과 의사결정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체적·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이달업, 1997). 직업은 장애인의 삶의 안정과 사회참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있어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정은주, 1998),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며

(나동석, 1992),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Segal과 Aviram(1978)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시설 내향성 및 지역사회 외향성 통합의 수준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지지, 동료지지, 친구지지 및 기타 사회지지 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대체로 가족보다는 친구나 동료, 기타 사회의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곤, 2002; 변소현, 1998). 김순곤(2002)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자존감, 기관서비스, 장애등급, 일상생활능력보다 자립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의 사회 통합에는 공식체계, 가족체계보다 친구체계가 더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황보옥, 2005). 나동석(1992)의 연구에서는 모임이나 단체의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가족의 정서적인 환경은 장애인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데 있어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Westaway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보다 일반적인 건강이나 일상생활에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식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선진, 2005).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혹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실제 한국의 장애인들은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김성희 외 2인, 2004). 장애인 당사자들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우리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차별을 꼽고 있다(박수미 외 3인, 2004). 이렇게 볼 때 다

른 사회적 차별과 비교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최지선 외 1인, 2010),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활동보조서비스

김경미(2005)의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이 본인의 삶과 환경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력이 증대되고, 자신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함께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Dejong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소비자 지향적 활동보조를 제공받은 장애인들이 자립심을 획득하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데 유리한 것으로 밝혔다.

박영국(2010)에 따르면 자립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만족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스케줄 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에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선행 조건임을 알 수 있다.

5) 역량강화

이익섭 외 2인(2007)에서는 자립생활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참여 및 고용의 관계에 있어 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장애인의 역량강화는 자립생활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의 참여 및 고용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와 고용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4. 자립생활 관련 측정도구

미국의 National Independent Living Skills(NILS)의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에서는 건강과 위생, 가족에 대한 책임, 금전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법에 관한 지식, 사회 및 대인관계 기술, 부적응 행동 등 7가지 영역을 포함시켰다(Dunlap et al, 1987). NILS는 4점 척도로 측정되는데, 수행할 수 없음-물리적인 도움이 필요함-말로서의 도움이 필요함-혼자 할 수 있음으로 분류했다. 점수 구성으로 알 수 있듯이 NILS는 서비스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판정도구로서 적절할 수 있으며, 7개 영역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영역별 자립생활기술훈련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NILS는 영역별 문항수가 평균 130개를 육박하여 매우 방대한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에 기초하기 보다 ADL 혹은 IADL의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자립에 필요한 기술의 정도를 사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라고 보인다(윤재영, 2010).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에서 개발한 '자립생활에 대한 자가평가도구'가 있는데, 이 역시 자립생활기술훈련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욕구와 성과를 판정하기 위해 제작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박경수 외 5인, 2011 재인용). 이 평가도구의 구성요소는 건강관리, 자기신뢰, 자기주장, 인생설계, 금전관리, 주거생활, 가정살림, 식사, 사회생활과 사교성, 시간관리, 권리와 정보, 개호서비스, 일(직업), 성 등 14개 영역(총 1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요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에서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3개 영역(총 29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평정을 재구조화하였다. 그러나 항목 선정기준과 자립생활의 구성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데(김동기, 2005), 이와 같은 타당도와 신뢰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애인 자립생활연구에서 자립생활 자가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박경수 외 5인, 2011 재인용; 김순곤, 2002; 최성원, 2005). 윤재영(2010)은 국립재활원의 자립생활 자가평가 도구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창하는 자립생활의 개념을 강조하

여 '자기결정, 역량강화, 관계, 생산성, 사회 환경'의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요소를 제시했다. 이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립생활의 개념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실증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체를 도출하여 우리 형편과 이해에 맞는 자립생활척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윤재영, 2010).

이외에도 엠마우스 그룹홈 개인별 적응행동 성취도 검사(엠마우스복지관, 200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자가평가지표(김미경 외 3인, 2005), 지역사회 적응검사-CIS-A(김동일 외 1인, 2004),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평가척도(박선아, 2011), AAMR(미국 지적지체학회)에서 개발한 적응행동척도- 주거 및 지역사회용 2판(AAMR Adaptive Behavior Scales-Residential and Community 2/ABS-RC2) 등이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들이다(엄정금, 2003). 부분적으로 자기결정능력에 대한 평가도구도 있는데, 아동·청소년장애인 프로그램에 기초한 자기결정기술척도(방명애, 2007)와 Wehmeyer와 Kelchner(1995)가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Adolescent Version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자기결정능력평가(김정권 외 3인, 2000) 등이 대표적이다(박선아 외 1인, 2009). 이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자립생활 관련 척도의 종류

척도	구성내용	문항 영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자가평가지표 국립재활원 (김미경 외 3인, 2005)	1. 대상 : 성인 장애인 2. 목적 : 중증장애인 대상 자립생활 평가 3. 구성 : 3개 영역, 29문항 4. 방법 : 자가평가 (5점척도)	1. 신체적 기능(8문항) 2. 정신적 기능(7문항) 3. 사회적 기능(14문항)
엠마우스 그룹홈 개인별 적응행동 성취도 검사	1. 대상 : 그룹홈 이용 장애인 2. 목적 : 적응행동 평가 3. 구성 : 3개 영역 153문항	1. 자립 (51문항) 2. 가사보조(42문항) 3. 사회적응기술(60문항)

(엠마우스, 2003)	4. 방법 : 관찰평가 (5점척도)	
지역사회 적응검사 CIS-A (Community Integration Skill-Assessment) (김동일 외 1인, 2004)	1. 대상 : 성인 장애인 2. 목적 : 지역사회 적응능력 3. 구성 : 9개영역 164문항 4. 방법 : 4개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맞는 그림을 맞추도록 지시, 그 반응을 관찰	1. 기초개념(17문항) 2. 기능적기호와 상징(18문항) 3. 가정관리(17문항) 4. 건강과 안정(17문항) 5. 공공서비스(17문항) 6. 시간과 측정(17문항) 7. 금전관리(19문항) 8. 직업기능(21문항) 9. 대인관계 및 여가(19문항)
적응행동척도 - 주거 및 지역사회용 (엄정금, 2003)	1. 대상 : 성인 지적장애인 2. 목적 : 주거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적응행동 평가 3. 구성 : 1부) 10개영역 73문항 적응 : 2부) 8개영역 41문항 부적응 4. 방법 : 관찰자 평가	1. 독립기능(24문항) 2. 지체발달(6문항) 3. 경제활동(6문항) 4. 언어발달(10문항) 5. 수와 시간(3문항) 6. 가사활동(6문항) 7. 직업활동(3문항) 8. 자기관리(5문항) 9. 책임(3문항) 10. 사회화(7문항)
자기결정능력 검사 (김정권 외 3인, 2000)	1. 대상 : 장애 청소년 2. 목적 : 자기결정능력평가 3. 구성 : 72문항 4. 방법 : 자가평가	1. 자율성(32문항) 2. 자아실현(40문항)
프로그램에 기초한 자 기결정 기술척도 (방명애, 2007)	1. 대상 : 지적장애아동 청소년 2. 목적 : 자기결정 능력 향상 위한 교수법 효과성 평가 3. 구성 : 9개 영역(180문항)	1. 자기인식능력 2. 자기관리기술 3. 선택기술 4. 자기옹호기술

	4. 방법 : 특수교사 관찰자 평가	5. 지원망구성기술 6. 지역사회 활용기술 7. 사회성 기술 8. 협력기술 9. 스트레스 해소기술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평가척도 (박선아, 2011)	1. 대상 : 성인 지적장애인 2. 목적 : 자립생활능력 평가 3. 구성 : 7개요인(103문항) 4. 방법 : 자가평가	1. (지적) 선택기술 2. (지적) 자기인식요인 3. (지적) 자기관리기술요인 4. (지적) 자기옹호기술 5. (지적) 지원망구성기술 6. (지체) ADL 7. (지체) IADL
자립생활척도 (윤재영, 2010)	1. 대상 : 성인 장애인 2. 목적 : 장애인 자립생활 평가 3. 구성 : 9개요인(47문항) 4. 방법 : 자가평가	1. 자기신뢰 2. 자기결정 3. 자기역량강화 4. 가족관계 5. 이웃 및 동료관계 6. 복잡한 대인관계 7. 공동체관계 8. 생산성 9. 사회환경

출처 : 박선아 · 김성한(2009) 수정 및 보완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 자립역량척도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모형

성과(Outcomes)라 함은 목적 및 목표 달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되기보다 시대환경 및 정책적 추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정부터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자립을 체험하게 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거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취지와 현황에 비추었을 때,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 생활 향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역량강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가진다.

- 첫째,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있어서 자기관리하기
- 둘째, 자기결정권을 알고 자기선택에 따른 책임을 실천하기
- 셋째,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기
- 넷째, 대인관계 및 지원망을 형성하고 확대하기
- 다섯째,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하며 참여하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근거하여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그 준거 틀로 논리모형을 적용한다. 논리모형은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간의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Schalock et 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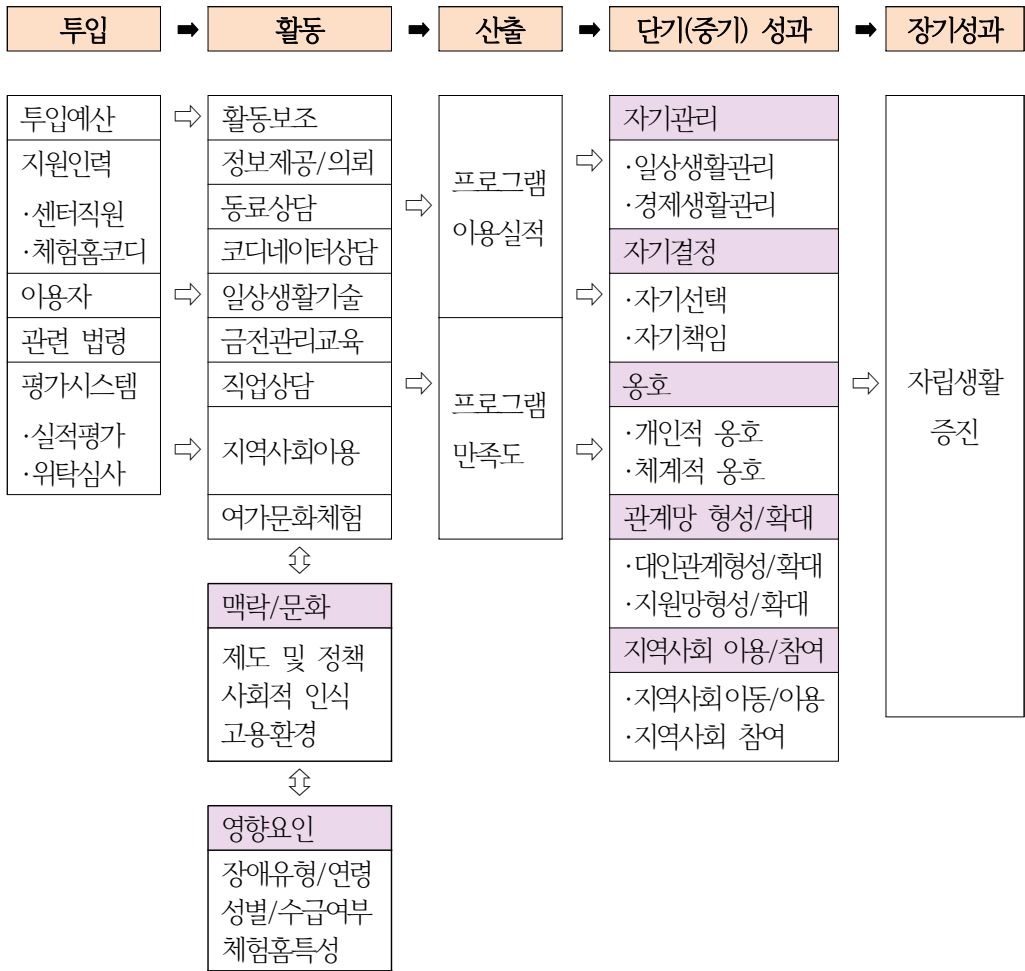
논리모형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득력 있고 쉽게 보여준다. McLaughlin과 Jordan(2004)에 따르면 논리

모델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예상되는 성과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표현하였다. 논리모델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수정, 수행, 보급 등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이다(Savaya et al, 2005). 최근에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평가 단계 뿐 아니라 설계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익섭 외 2인, 2007 재인용; McLaughlin et al, 2004).

논리모델은 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 간의 연속성을 도표화하여 각 범주를 가로지르는 정보의 흐름을 알려준다. 단순한 성과 평가에 비해 각 요소들 간의 연계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논리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자원,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등이다(Savaya et al, 2005). 자원 혹은 투입의 요소에는 인적·재정·조직 자원과 지역공동체 자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서비스나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요소이다. 활동 혹은 과정은 투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후의 산출은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의미한다. 보통 수행한 사업의 양이나 참여인원 수 등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프로그램 표적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나 편익을 지칭한다. 지식, 인지, 태도, 행동, 지위 상의 변화를 의미하며, 성과는 시계열적인 논리적 연결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증가 단계인 단기성과-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중기 성과- 그리고 지위상의 변화나 상황의 개선 등으로 표출되는 장기 성과로 분류된다(이익섭 외 2인, 2007 재인용; McLaughlin et al, 2004).

논리모델의 기준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모형을 개발하였고, 그 모형은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모형

2.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개발

1) 척도 방향성

위의 성과모형에 기반을 두어 이를 구체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성과척도를 개발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다룬바와 같이 자립생활패러다임의 가치와 주요이념을 중심으로 구성개념을 구성하였다.

전환서비스의 목적이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본 척도에서는 전환서비스 이용을 통해 증대되어야 할 자립역량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가 측정 이외에도 관찰이나 주변인 평가가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주의 및 인권중심주의에 의거하여 본인의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추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척도의 측정 내용은 자립생활 전반이다. 일상생활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NILS의 자립생활기술훈련척도나 자기결정기술척도, 적응행동 성취도, 지역사회 적응검사 등의 평가도구처럼 자립생활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한 척도들이 있다. 이들은 자립생활을 구성하는 부분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혹은 장애인의 기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와 다르게 윤재영(2010)은 자립생활의 기본 개념을 비롯하여 사회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자립생활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의 일부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도 사회 환경 요소를 포함하지도 않는다. 장애인의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 환경과 구조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영역은 본 서비스를 통한 성과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제외하였다. 고로 자립역량척도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이자 장애인전환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기초한 필수 자립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을 함에 필요한 역량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장애유형별로 지역사회 내 자립양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나 그 세부적인 부분을 나누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장

애인전환서비스는 장애유형별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척도에서 전환서비스 성과 개념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구성하되, 표현의 난이도로 차이를 두었다.

셋째, 전환서비스 성과 중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심리내적 역량변화는 제외한다. 계량화된 지표를 통한 일시적인 측정으로 개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의지 등의 심리내적인 변화를 추정함에 따르는 한계 때문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을 당사자용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2~3차의 반복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자립역량척도에서 제외되는 심리적 차원의 성과나 변화는 질적인 방법론인 면접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넷째, 자립역량척도는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기술·인지·지식 차원의 단기 성과지표(단기 자립역량지표)와 행동적 차원의 중기 성과지표(중기 자립역량지표)로 구분한다. 즉, 동일한 내용이 단기 성과지표와 중기 성과지표로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단기 성과지표에 해당하며, 행동으로 표출되는 다음 문항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중기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문항을 정확히 읽지 않고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 잘못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디네이터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항 수는 지적장애인도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30~40문항 내로 구성하였다.

2) 척도 구성 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역량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진 다. 개인적 자립역량은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라는 3개의 구성개념으로, 사회적 자립역량은 관계망 형성 및 확대,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라는 2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진다. 5개의 구성개념은 각 2개씩의 하위개념을 총 10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고, 하위개념별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40문항의 척도가 된다(〈표 2-3〉 참고).

〈표 2-3〉 자립역량척도의 구성

내용	구성개념	하위개념	문항	단기	중기
개인적 자립역량 (24)	자기관리	일상생활관리	4	2	2
		경제생활관리	4	2	2
	자기결정	자기선택	4	2	2
		자기책임	4	2	2
	옹호	개인적 옹호	4	2	2
		체계적 옹호	4	2	2
사회적 자립역량 (16)	관계망 형성 및 확대	대인관계 형성 및 확대	4	2	2
		지원망 형성 및 확대	4	2	2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	지역사회 이동 및 이용	4	2	2
		지역사회 참여	4	2	2
		total	40	20	20

구체적으로 자기관리는 일상생활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및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일부를 나타내는 ‘일상생활관리’와 금전관리를 포함하는 ‘경제생활관리’로 구성된다.

자기결정영역에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인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

옹호는 장애인 인권 및 자조자립, 소비자 중심주의에 기반을 두어 자신을 의견을 표현하고 권익을 추구하는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자립역량은 정상화(normaliz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적 관점에서의 자립역량이다. 이 중 관계망 형성 및 확대 영역에서는 대인관계와 지원망 형성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는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용하고, 참여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자립역량척도(지체장애인용)은 다음의 〈표 2-4〉, 〈표 2-5〉와 같으며, 실제 설문으로 구성된 척도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4〉 자립역량척도의 내용 : 개인적 자립역량

자기 관리	
일상 생활 관리	일상생활(예. 세수, 양치질, 화장실 이용, 식사, 청소, 빨래, 옷 갈아입기, 이동 등)기술을 알고 있다.
	(주변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예. 세수, 양치질, 화장실 이용, 식사, 청소, 빨래, 옷 갈아입기, 이동 등)을 어려움 없이 수행한다.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예. 현관문/창문 잠그기, 가스 레인지 소화 등).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한다(예. 현관문/창문 잠그기, 가스레인지 소화 등).
경제 생활 관리	매월 생활비(예. 근로소득, 수급비, 연금, 수당 등)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예. 청약저축, 세금, 용돈 등) 알고 있다.
	매월 계획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향후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향후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을 한다.
자기 결정	
자기 선택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주변사람의 조언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주변사람의 조언을 듣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내 판단에 따른다.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선택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내가 결정한다.
자기 책임	내가 결정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내 삶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

	내 삶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에 따라 생활한다.
옹호	
개인적 옹호	내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는 거절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는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표현한다.
체계적 옹호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예.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집회 참여 등) 알고 있다.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세미나·토론회 등(예. 공청회, 집회)에 참여한다.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투표나 선거가 있음을 알고 있다.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다.

〈표 2-5〉 자립역량척도의 내용 : 사회적 자립역량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대	
대인 관계 형성 및 확대	의사소통기술(예. 경청, 공감, 말하기, 적절한 반응 등)을 알고 있다.
	의사소통기술(예. 경청, 공감, 말하기, 적절한 반응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다른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과 어울리는 방법(예. 여가문화 생활, 사회활동 등)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과 자주 어울린다.
지원망 형성 및 확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예. 112 전화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
	내 생활에 큰 힘이 되는 주변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이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

지역 사회 이용	내게 필요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내게 필요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게 필요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
	지역사회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주변의 도움으로) 내게 필요한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적절히 이용한다.
지역 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어떤 단체나 모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단체나 모임에 참여한다.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예. 바자회, 축제 등)의 종류를 알고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예. 바자회, 축제 등)에 참여한다.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의 신뢰도⁸⁾는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크론바하 알파계수⁹⁾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총 10개의 하위개념 중에 내적 일관성이 바람직한 수준 이상이 6개(일상생활관리, 자기선택, 자기책임, 개인적 옹호,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 이동 및 이용)이며, 나머지 4개의 하위개념도 0.6 이상으로 척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개념 단위로 추정했을 때에는 5개 모두 바람직한 수준¹⁰⁾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역량척도의 타당도¹¹⁾는 4명의 장애인 전문가(자문위원)의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작업을 통해 액면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사례 수가 적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자립역량척도의 타당도 보완을 기대해본다.

8) 신뢰도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이며, 검사도구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의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다. 신뢰도는 반복 측정 신뢰성, 대안항목 신뢰성, 내적 일관성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내적일관성이다. 한 개념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한 일관성이나 동질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한다.

9)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이나 그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넘어야 하는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간주된다. 0.6 이상이면 수용할 정도의 수준이며, 그 이하일 경우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전수 79명(2013년 6월 기준)과 비교집단으로 시설거주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신뢰도임을 밝힌다. 사례수가 보다 많이 표집 된다면 신뢰도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11) 타당도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도구가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있다.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이나 개념의 모든 속성을 완벽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도이며, 기준관련 타당도는 이미 공인된 측정도구와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타당도를 평가한다. 구성타당도는 이미 검증된 기존의 이론 속에서 이 척도와 이론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타당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표 2-6〉 자립역량척도의 신뢰도

내용	구성개념	Cronbach' α	하위개념	Cronbach' α	항목수
개인적 자립역량 (24)	자기관리	.763	일상생활관리	.702	4
			경제생활관리	.666	4
	자기결정	.881	자기선택	.782	4
			자기책임	.813	4
	옹호	.787	개인적 옹호	.716	4
			체계적 옹호	.636	4
사회적 자립역량 (16)	관계망 형성 및 확대	.841	대인관계 형성 및 확대	.771	4
			지원망 형성 및 확대	.673	4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	.794	지역사회 이동 및 이용	.762	4
			지역사회 참여	.696	4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면접지

1. 면접지 방향성

전환서비스 성과 측정도구인 자립역량척도에서 배제했던 심리적인 성과 부분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서비스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먼저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나타난 심리적 변화와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지지체계, 취업여부, 성격, 활동보조제도 등이 있다. 2차적으로는 전환서비스 보완점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이로부터 서비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2. 면접지 구성 내용

면접을 위한 비구조화된 면접지는 크게 다음의 <표2-7>과 같다. 면접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성상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만남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한계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된다.

<표 2-7> 면접지 구성

순서	주 제	내 용
①	가벼운 인사	- 날씨, 건강, 기분 등
②	환기	- 체험홈 이전 생활 - 체험홈 알게 된 계기 - 체험홈 거주 선택 이유 - 만족정도 (시설 친구에 추천여부 등)
③	전환서비스 성과 (변화 등)	i) 하루 일과 ii) 구체적 상황 혹은 경험 <외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혹은 대응(위기상황 등) - 자기생각 자기결정 우선순위 선정 - 의사표현 <p><내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 : 주체의식, 자신감, 책임감, 소속감, 자긍심 - 부정 : 무기력감, 두려움 등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이란]	
④	전환서비스 성과 영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관계 - 시설담당자와의 관계 - 취업(고용) 및 사회참여 정도 - 개인의 특성(성격, 장애수용 및 태도) - 제도 및 환경 	
⑤	전환 서비스	체험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의 적절성 - 서비스 보완사항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홈과 가정의 차이점 - 두 서비스의 장단점
⑥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사 및 지급내역서 작성 	

환기에서는 아래의 모든 내용을 다룰 필요 없으며,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가볍게 면접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접근한다.

⇒ 자립생활체험홈 이전 생활

: 체험홈을 이용하기 전에는 어떤 시설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때의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 자립생활체험홈 알게 된 계기

: 체험홈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자립생활체험홈 거주 선택 이유

- : 체험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시설을 나와 체험홈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가족, 시설관계자, 친구 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 (만약 반대나 갈등이 있었다면) 가족과 시설관계자 등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 시설의 보호 속에서 살다가 혼자 나와서 산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 : 그때, 자립생활을 해보겠다는 ○○님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누구였습니까?
- ⇒ 자립생활체험홈/가정 만족정도
 - : 현재 자립생활체험홈/가정에서의 삶은 어떠십니까?
 - :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추천을 하십니까?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의 범주에서는 면접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질문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화 속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 ⇒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변화 경험’에 주목하기
 - : 자립생활체험홈/가정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 (근로자라면) 직장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 여가활동은 주로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시설에서 거주할 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은 만족스러우십니까?
 -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기까지 어떻게 보내십니까?
- ⇒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며 ‘변화 경험’을 파악하기
 - : 이렇게 체험홈에서 자립을 경험하다보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다’ 혹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 : 자립생활체험홈/가정에서 지내다보니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지 않으십니까?
- 고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심리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입니까?

: 시설에서 살았을 때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1년 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장애인이 바라보는 ‘자립 역량’

: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역량이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와 같은 성과나 변화를 야기한 영향요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상의 면접내용을 기반으로 면접대상자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질문한다.

⇒ 가족과의 관계

: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 가족들은 내 고민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나를 다른 가족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습니까? 혹은 가족들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습니까?
-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 시설담당자와의 관계

: 시설담당자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 시설에서 체험홈으로 나오겠다고 했을 때, 담당 선생님이 지지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했습니까?

⇒ 활동보조인과의 관계

: 활동보조인과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 취업(고용) 및 사회참여 정도

: 취업을 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예) 자신감, 심리적 안정, 소속감, 자긍심, 삶의 만족도 등

⇒ 개인의 특성 (성격, 장애수용 및 태도)

: ○○님은 본인의 성격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님은 본인의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애가 속상한 일이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장애가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한다.

⇒ 제도 및 환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건축물, 편의시설 등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면접의 마지막은 전환서비스의 보완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대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적절하게 질문하되, 면접 대상자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 기간의 적절성

: 체험홈(자립생활가정)에서의 자립경험은 2년(5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비스 보완사항

: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립생활체험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 코디, 혼자 사는 체험홈 등)

⇒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차이점

: 체험홈에서 살 때와 현재(자립생활가정)와 어떤 점이 다르십니까?

: 차이점이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 두 서비스의 장단점

: 체험홈의 장단점과 자립생활가정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3 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양적 성과 측정 및 분석

1. 측정 개요
2.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3.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4. 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5.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6. 소결

1 측정개요

1. 측정대상 및 기간

1) 측정대상

(1) 전환서비스 이용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 전수인 79명(2013년 7월 기준)은 자립역량척도 측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 중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는 53명이고, 자립생활가정의 이용자는 26명이다 (<표 3-1>참고).

장애유형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장애 등과 같은 외부 지체 및 기능상 장애와 간질장애나 호흡기장애와 같은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다. 전환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신체장애유형 중 지체 · 뇌병변 장애가 상당부분인 관계로 이하에서는 신체장애라는 표현 대신 지체장애로 갈음한다. 정신장애 유형 중에서도 지적장애가 대부분이므로 그 표현을 지적장애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 3-1>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장애유형 및 운영방식

전환서비스	장애유형	인원		운영방식
체험홈	지체	26	53	25개 운영사업자 위탁방식
	지적	19		
	복합	8		
자립생활가정	지체	19	26	15개 자립생활가정 직접 운영
	지적	3		
	복합	4		

(2) 비교집단 구성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를 보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탈 시설했을 때의 초기 역량수준과 이용 이후의 역량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용자의 역량수준을 측정할 척도가 없었기에 초기 측정값(baseline value)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개별적 특성이 강한 장애인 집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 실험설계를 도입하였다.

즉, 전환서비스의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전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성하여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집단과의 자립역량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비교집단을 구성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집단과의 표본선택편의 문제이다. 즉, 비교집단의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정하여 사업집단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그 대안으로 존재한다(이서운, 2010). 그러나 대량의 표본이 있는 2차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문측정을 위한 선별적 대상섭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통제집단의 구성에 있어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사업집단의 초기 수준을 추정하고자 구성하는 비교집단이라는 점에서 장애정도와 기능수준이 매우 떨어져 지역사회자립을 고려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척도를 읽고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동일한 비율로 장애유형을 섭외함으로써 부족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교집단 통제를 시도하였다. 섭외한 기관 및 대상자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비교집단의 구성

장애유형	인원	시설명	주소
지체(20명)	15	늘편한집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	SRC 보듬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적(20명)	10	은혜장애인요양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5	늘편한집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	인강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2) 측정기간

자립역량척도는 2013년 6월 19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측정되어 자료가 수집되었다.

2. 측정 및 분석방법

1) 측정방법

자립역량척도는 장애인 당사자용으로 개발되어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형태이나, 논리 모형에 따른 인지적 차원의 문항과 행동적 차원의 문항이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혼돈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코디네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립역량척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측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척도를 배분하였고,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양적 자료의 분석은 두 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검증¹²⁾함으로써 집단 간 자립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2)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모집단의 정규성 및 등분산 가정이 충족하지 못하여 모수 통계 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인 만-위트니 U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보다 다양한 분석에는 제한이 있으나, 두 개의 독립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검정하여 집단 간 자립역량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만-위트니 U 검증(Mann-Whitney U test)으로도 충분하다.

2 분석대상 일반적 특성

1. 장애유형

시설거주자와 전환서비스(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용자의 장애유형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첫 번째 과정인 자립생활체험홈의 경우 장애유형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체험홈의 과정을 마치고 이동한 자립생활가정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비해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15% 포인트 가량 높다.

<표 3-3> 분석대상의 장애유형

서비스유형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체	지적	지체	지적	지체	지적
인원 수(%)	20 (50)	20 (50)	26 (49.1)	27 (50.9)	15 (57.7)	11 (42.3)
소계(%)	40 (100)		53 (100)		26 (100)	

2. 장애등급

장애등급에 있어서는 세 집단 모두 1급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집단 간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시설거주 집단에는 3급 이하의 장애인이 적고 1·2급 장애인의 비율이 97%에 달한다는 점이다. 체험홈은 1·2·3급의 장애인이 비교적 고루 존재하며, 자립생활가정의 경우는 2급 장애인이 거의 없으나 3급 장애인이 15% 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집단과 차이가 있다.

13) 복합장애 혹은 지체장애일지라도 지적능력이 낮아 '지적장애인용 자립역량척도'를 사용한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표 3-4〉 분석대상의 장애등급

전환서비스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1급	24(60)	29(54.7)	21(80.8)
2급	15(37.5)	13(24.5)	1(3.8)
3급	1(2.5)	10(18.9)	4(15.4)
기타	-	1(1.9)	-
소계(%)	40 (100)	53 (100)	26 (100)

3. 연령 및 성별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시설거주자의 경우에는 40-60대 이상의 비율이 전환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의 경우, 20·30대의 비중이 70~80%에 이르러 시설거주자에 비해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시설에서의 오랜 거주 경험은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서비스 신청자들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5〉 분석대상의 연령

전환서비스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20대	9(22.5)	25(47.2)	11(42.3)
30대	14(35.0)	17(32.1)	7(26.9)
40대	3(7.5)	7(13.2)	2(7.7)
50대	8(20.0)	3(5.7)	4(15.4)
60대	6(15.0)	1(1.9)	2(7.7)
소계(%)	40 (100)	53 (100)	26 (100)

분석대상의 성별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표 3-6〉 분석대상의 성별

전환서비스	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남자	26(65.0)	39(73.6)	16(61.5)
여자	14(35.0)	14(26.4)	10(38.5)
소계(%)	40 (100)	53 (100)	26 (100)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1.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1) 연구가설

귀무가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시설에 거주한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같을 것이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79명)의 자립역량과 비교집단인 시설거주 장애인(40명)의 자립역량을 비교해봄으로써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검증하였다.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

〈표 3-7〉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립역량 수준

영역 및 집단	전환서비스 미 이용집단			전환서비스 이용집단		
	평균	표준편차	증위수	평균	표준편차	증위수
자기관리	3.06	.58	3.13	3.69	.36	3.75
자기결정	2.95	.75	3.13	3.64	.43	3.75
옹호	3.04	.60	3.13	3.47	.42	3.63
사회적관계망	3.18	.70	3.50	3.62	.34	3.63
사회참여	2.61	.71	2.63	3.37	.53	3.50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자립역량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자립역량척도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역량이 시설 거주 집단의 역량보다 높고 편차가 작다. 또한 중위수에 있어서도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검정통계량 비교

두 집단의 표본이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자립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표 3-8>이 보여주고 있다. 즉,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 자립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수용하게 된다. 위의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자립역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차이는 동일한 집단의 표본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단순 차이가 아님을 보인 것이다. 즉,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나뉜 두 집단은 자립역량 수준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이질적 집단이다.

<표 3-8>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영역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553.500	704.500	912.00	1012.000	631.00
유의확률	.000***	.000***	.000***	.001***	.000***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결과의 해석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자립역량수준이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역량이 증대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이용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전환서비스의 자립역량 증대효과인 것이다.

대립가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시설에 거주한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다르다.

2. 장애유형별 자립역량 증대효과 비교

1) 연구가설

귀무가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지적)장애인 집단과 시설에 거주한 지체(지적)장애인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같을 것이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 집단(41명)의 자립역량과 비교집단인 시설거주 지체장애인(20명),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적장애인 집단(38명)과 비교집단인 시설거주 지적장애인(20명)의 자립역량을 비교해봄으로써 장애유형별로 자립역량 증대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3-9〉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집단 구분		인원 수 (%)
지체장애인	전환서비스 이용 집단	41 (34.5)
	서비스 통제집단	20 (16.8)
지적장애인	전환서비스 이용 집단	38 (31.9)
	서비스 통제집단	20 (16.8)
합계		119 (100.0)

2) 집단 별 자립역량 점수비교(측정결과)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의 자립역량과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의 자립역량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3-10>과 같다.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추정한 것과 유사하게 자립역량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역량이 시설 거주 집단의 역량보다 높고 편차가 작다. 또한 중위수에 있어서도 전환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값이 높다. 지적장애인도 지체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다(<표 3-11> 참고).

<표 3-10>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립역량 수준(지체장애인)

영역 및 집단	전환서비스 미 이용집단			전환서비스 이용집단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자기관리	2.96	.64	3.06	3.69	.36	3.75
자기결정	3.01	.82	3.13	3.74	.37	3.88
옹호	3.10	.68	3.19	3.56	.39	3.63
사회적관계망	2.98	.76	3.00	3.68	.30	3.75
사회참여	2.64	.86	2.63	3.39	.40	3.38

반면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집단끼리 비교했을 때는 지체장애인 집단의 평균이 지적장애인의 값에 비해 소폭이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1>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립역량 수준(지적장애인)

영역 및 집단	전환서비스 미 이용집단			전환서비스 이용집단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자기관리	3.16	.52	3.25	3.68	.36	3.81
자기결정	2.89	.70	3.00	3.53	.46	3.69
옹호	2.98	.53	3.06	3.36	.42	3.44
사회적관계망	3.39	.59	3.56	3.56	.38	3.63
사회참여	2.58	.55	2.63	3.34	.64	3.50

3) 감정통계량 비교

두 집단의 표본이 동일한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지체장애인 집단의 자립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표 3-12>이 보여주고 있다. 옹호와 사회참여 영역에서 유의수준이 조금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 자립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위의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자립역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차이는 동일한 집단의 표본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단순 차이가 아님을 보인 것이다. 즉,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나뉜 두 집단은 자립역량 수준이 통계적으로 매우 이질적 집단이다.

<표 3-12>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지체장애인)

영역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121.500	186.000	234.00	176.00	204.50
유의확률	.000***	.000***	.007**	.000***	.002**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자립역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는 시설거주 지적장애인과 유의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귀무가설을 취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자립역량 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는 대립가설을 취한다.

<표 3-13> 전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지적장애인)

영역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151.500	169.000	218.00	330.00	129.50
유의확률	.000***	.001***	.008**	.410	.000***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결과의 해석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자립역량 강화효과를 검증하였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든 자립역량 영역에서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보였다. 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제외한 네 개 영역에서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자립역량 증대효과가 보다 가시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대’ 영역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체장애인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정신적·사회적 자립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의 경우도 가족지지를 제외한 친구나 기타 사회적 지지에서 지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유영준 외 2인(2008)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는 점에서 장애특성으로 기인한 결과라고 보인다.

대립가설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지체(지적)장애인 집단과
시설에 거주한 지체(지적)장애인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다르다.

4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1.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1) 연구가설

귀무가설

체험홈 이용자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같을 것이다.

위의 2절에서 전환서비스의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입증하였고, 이어 전환서비스 진행 및 이동에 따른 역량강화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용자의 자립역량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와 자립생활가정 이용자는 다음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 구성

전환서비스 장애유형 ¹⁴⁾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체	지적	지체	지적
인원 수(%)	26 (49.1)	27 (50.9)	15 (57.7)	11 (42.3)
소계(%)	53 (100)		26 (100)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측정결과)

전환서비스별(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3-15>와 같다. 자립역량척도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14) 복합장애 혹은 지체장애일지라도 지적능력이 낮아 '지적장애인용 자립역량척도'를 사용한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관계망, 사회참여)에서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역량이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 집단의 역량보다 높고 편차가 작다. 중위수에 있어서도 자립생활가정 집단의 값이 높다.

〈표 3-15〉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

영역 및 집단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자기관리	3.63	.40	3.75	3.80	.23	3.88
자기결정	3.54	.48	3.75	3.84	.20	3.88
옹호	3.41	.45	3.50	3.59	.30	3.63
사회적관계망	3.58	.36	3.63	3.72	.30	3.81
사회참여	3.31	.57	3.38	3.49	.42	3.50

3) 검정통계량 비교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경우, ‘자기관리’와 ‘자기결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립역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16〉참고). 즉,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 자립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수용하게 되는 자립역량 영역은 ‘자기관리’와 ‘자기결정’이다. 이 외에 ‘옹호’와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영역에 있어서도 수치상 차이는 있으나, 다른 집단이라고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

〈표 3-16〉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검증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526.50	445.50	543.00	533.00	570.00
유의확률	.085 [^]	.010 ^{**}	.125	.100	.213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결과의 해석

전환서비스의 두 종류인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자기관리’와 ‘자기결정’의 자립영역에서는 자립생활가정 이용자의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자립생활가정이 다섯 가지 자립역량 중 ‘자기관리’와 ‘자기결정’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환서비스 진행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의 특성 등 변인을 모두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환서비스 진행에 따라 자립역량이 강화되어 나타난 효과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자립역량이 높은 이용자들이 자립생활가정으로 서비스 이동을 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적절한 해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전환서비스 진행 및 이동(체험홈 ⇨ 자립생활가정)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에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한 정적 혹은 부적 강화효과가 섞여 있을 수 있으나, 전환서비스 진행에 따른 역량강화효과 역시 일정 부분 입증되었다.

대립가설 채택

체험홈 이용자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자기관리’, ‘자기결정’의 자립역량은 다르다.

2.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비교

1) 연구가설

귀무가설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은 같을 것이다.

현재 전환서비스는 시설에서 나와 먼저 이용하게 되는 체험홈과 체험홈에서의 적응기간을 거친 뒤에 이용하게 되는 자립생활가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집단별로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을 비교해봄으로써 서비스의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전환서비스별 자립역량이 인지·기술·지식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단기 자립역량은 서비스 이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수준으로 확보되어 서비스 전환에도 큰 향상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동적 측면의 역량이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중기 자립역량은 서비스 전환 및 이용기간에 영향을 받아 향상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

전환서비스별(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측정 결과는 다음의 <표 3-17>과 같다. 자립역량척도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의 단기(중기)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위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역량수준이 단기 뿐 아니라 중기에서도 높고, 편차도 작음을 알 수 있다. 중위수 역시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값이 높다.

〈표 3-17〉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

영역 및 집단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단기 자립역량	3.53	.37	3.65	3.75	.19	3.80
중기 자립역량	3.45	.39	3.50	3.62	.20	3.65

3) 검정통계량 비교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경우, 단기 및 중기 자립역량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기 및 중기 자립역량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입증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표 3-18〉 전환서비스별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 차이검증

영역	단기 자립역량	중기 자립역량
집단 통계값	453.500	526.500
유의확률	.014*	.089 [^]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결과의 해석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 집단에 비해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을 단기/중기 자립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차원으로 보아도 자립생활가정 이용자의 자립역량이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자의 자립역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행동으로 표출되는 중기 자립역량에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다음의 것을 함의하고 있다. 체험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해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이나 지

식이 바로 행동적인 변화나 성과로 나타나기보다 자율적인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기술·지식 차원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기 자립역량도 서비스전환 및 이동에 따라 강화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단기 자립역량의 점수가 중기 자립역량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미루어 표출되는 행동에 앞서 인지나 지식차원의 변화가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리모형에 근거한 본 서비스의 성과모형이 적합함을 입증하고 있다.

대립가설 채택

체험홈 이용자 집단과 자립생활가정 이용자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은 다르다.

5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비교

1.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

1) 연구가설

귀무가설

전환서비스 1년 미만 이용자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같을 것이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환서비스 이용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구분 시점으로 체험홈 이용기간인 2년이 적절할 것이나, 현재 전환서비스를 운영한지 오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년 이상 이용자가 매우 적다. 이에 이용기간 증가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1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집단 구성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집단 구분

집단 구분	1년 미만 이용자		1년 이상 이용자	
	지체	지적	지체	지적
인원 수(%)	19 (59.3)	13 (40.7)	22 (46.8)	25 (53.2)
소계(%)	32 (100)		47 (100)	

15) 복합장애 혹은 지체장애일지라도 지적능력이 낮아 '지적장애인용 자립역량척도'를 사용한 경우,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한다.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두 집단의 자립역량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3-20>과 같다. 자립역량척도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자립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높고, 편차가 작다. 1년 이상 이용자의 중위값이 대체로 높거나 같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0>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수준

영역 및 집단	1년 미만 이용자			1년 이상 이용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자기관리	3.57	.42	3.63	3.76	.29	3.88
자기결정	3.60	.45	3.75	3.67	.42	3.75
옹호	3.42	.44	3.44	3.49	.40	3.63
사회적관계망	3.57	.39	3.69	3.66	.30	3.63
사회참여	3.28	.63	3.38	3.43	.44	3.50

3) 검정통계량 비교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으로 구분한 두 집단의 자립역량은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다섯 개의 영역 중 유일하게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는 영역은 '자기관리'인데, 서비스 이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통제변수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것은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표 3-21> 참고).

〈표 3-21〉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차이검증

	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관계망	사회참여
집단 통계값	532.500	698.000	671.000	672.500	658.500
유의확률	.026*	.582	.416	.422	.348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결과의 해석

전환서비스 전환 및 이동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 효과에 비해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는 그 영역이 감소하였다. 서비스 이용기간으로만 분류한 두 집단에 통제되지 않았으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기관리 영역에서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다.

귀무가설 채택

전환서비스 1년 미만 이용자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의 자립역량 수준은 '자기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같다.

2.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비교

1) 연구가설

귀무가설

전환서비스 1년 미만 이용자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은 같을 것이다.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 향상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에 무차별하게 집단 간 인지·기술·지식 차원의 자립역량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단기 자립역량은 서비스 이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수준으로 확보되어 서비스 전환에도 큰 향상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적 측면의 역량이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중기 자립역량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받아 향상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2) 집단별 자립역량 점수비교

〈표 3-22〉의 단기(중기)자립역량이란, 자립역량척도의 모든 영역(자기관리, 자기결정, 옹호,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에서의 단기(중기)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위수를 나타낸다. 전환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의 단기 및 중기 자립역량의 평균 수준이 높으며, 편차는 작다. 중위수도 1년 이상 이용자 집단의 값이 높다.

〈표 3-22〉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

영역 및 집단	1년 미만 이용자			1년 이상 이용자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단기 자립역량	3.55	.37	3.63	3.64	.31	3.75
중기 자립역량	3.43	.43	3.53	3.56	.28	3.60

3) 검정통계량 비교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분류한 두 집단의 경우, 단기 및 중기 자립역량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표 3-23>이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분류한 두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3〉 전환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차이검증

영역	단기 자립역량	중기 자립역량
집단 통계값	623.500	640.500
유의확률	.198	.265

***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4) 결과의 해석

서비스 이용기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단기/중기 자립역량을 살펴보았다. 다섯 개의 영역으로 살펴보았던 자립역량을 단기/중기 자립역량 지표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서비스 이용기간별로 구분한 집단의 자립역량 중에서는 '자기관리'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네 개 영역에서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표 3-21> 참고). 다른 차원의 접근인 단기/중기 자립역량에서도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환서비스 이동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명확한데 비해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검증된 이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논의는 다음의 소결에서 다루고자 한다.

귀무가설 채택

전환서비스 1년 미만 이용자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의
단기(중기) 자립역량 수준은 같다.

6 소 결

전환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는 입증되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자립역량 증대효과가 보다 가시적이었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자립역량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환서비스의 순차적 이동 및 진행에 따라 집단 간 자립역량에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분석 하에서 이와 같은 효과는 서비스 진행에 따라 자립역량이 증대되는 효과와 함께 자립역량이 비교적 높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야기되는 부분도 섞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 이용기간별 자립역량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4>에서 알 수 있듯이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으로 집단을 분류한 것과 이용기간으로 집단을 분류했을 때의 차이는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중 체험홈 이용자'인 22명이다. 즉, 이 22명이 두 분석의 차이를 야기한 주요 변인인 것이다. 22명의 장애유형을 구분해 보면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3-25> 참고). 즉, 지역사회 적응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적장애인이 체험홈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고, 지역사회 적응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체장애인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두 분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전환서비스별 및 서비스 이용기간별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장애유형과 등급 등 통제되지 않은 변인이 야기하는 정적 혹은 부정적 강화효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인다. 사례 수가 적어 장애유형과 등급을 나누어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한 변인에 대한 통제 없이 개략적인 분석을 했을 때에도 개인적 자립역량 중 '자기관리'와 '자기결정' 영역에서의 차별화를 보였다는 점은 서비스 이용기간 및 전환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집단별 장애유형 및 등급이 통제된 상황에서 추가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강화효과도 보다 가시적일 것이다.

〈표 3-24〉 이용기간별 전환서비스 이용자 분류

구분(명)	체험홈	가정
1년 미만 서비스 이용자	31	1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22	25

이에 자립역량척도는 탈 시설시 초기값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개인의 역량변화를 관찰하여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환서비스의 이전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도 사용가능한데, 자립생활체험홈의 목표 달성여부를 본 척도로 검증하여 자립생활가정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3-25〉 체험홈 이용기간별 장애유형 분류

구분(명)	지체	지적	전체
1년 이하 서비스 이용자	18	13	31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8	14	22
전체	26	27	53



제 4 장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질적 성과 측정 및 분석

1. 측정 개요
2. 면접 내용분석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발전방안

1 측정개요

1. 면접 대상 및 기간

1) 면접 대상

본 연구의 면접 대상은 총 20명으로 전환서비스 이용자 15명(자립생활체험홈 8명, 자립생활가정 7명), 전환서비스 이용 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2명, 체험홈 관리자 2명, 이용자 가족 1명이다. 인터뷰 대상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외에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체험홈 이용자 면접 후에 짧은 인터뷰에 참여한 코디네이터 혹은 활동보조, 자립생활가정 이용자의 배우자나 룸메이트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담당 코디네이터 혹은 활동보조와 면담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표 4-1〉 면접 대상

대상	이용 서비스	성별(연령)	장애유형(등급)	인터뷰 시간
A	체험홈	여(29)	뇌병변 · 지적 (1급)	75분
B	지역사회자립	남(52)	지체 (3급)	70분
C	자립생활가정	남(23)	시각 · 뇌병변 (1급)	80분
D	체험홈	여(21)	지적 (3급)	65분
E	체험홈 관리자	여(44)	-	75분
F	체험홈	여(31)	뇌병변 (1급)	75분
G	체험홈 관리자	여(30)	-	65분
H	체험홈	남(31)	지적 (3급)	125분
I	지역사회자립	남(29)	뇌병변 (1급)	100분
J	자립생활가정	남(52)	지체 (1급)	80분

K	자립생활가정	여(31)	뇌병변 지체 (1급)	60분
L	자립생활가정	여(29)	뇌병변 (1급)	85분
M	자립생활가정	남(27)	지적 (2급)	80분
N	체험홈	남(20)	지체 (3급)	140분
O	자립생활가정	여(31)	지체 (1급)	75분
P	이용자 가족	남(44)	-	95분
Q	체험홈	남(44)	뇌병변 (1급)	95분
R	자립생활가정	남(39)	뇌병변 · 지적 (1급)	75분
S	체험홈	남(33)	뇌병변 · 언어 (1급)	50분
T	자립생활가정	여(39)	지적 (3급)	90분

2) 면접 기간

면접은 2013년 8월 19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원 2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2. 측정 및 분석방법

1) 측정방법

최소 1~2주 전에 전화상으로 사전 섭외를 한 후, 면접 대상자의 자택이나 인근 장소로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바탕으로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연구에 필요한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면접을 통해 구축한 수많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기반을 두었다. 먼저, 면접 녹음내용의 녹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축된 수많은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후 중요한 의미를 도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의미, 주제에 이름을 부여하고 분류하는 작업인 초벌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분석 자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응집하는 단계인 심층 분석을 통해 다음의 내용분석과 발전방안이 도출되었다.

2 내용분석 : 질적 성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자립생활체험홈 성과 및 문제점

1) 체험홈 필요성에 대한 공감

시설에서 체험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립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 자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이다. 전환서비스의 1단계 체험홈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체험홈은 시설에서의 삶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을 유연하게 이어주기 위한 중간다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즉, 전환서비스 존재의 당위성을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로부터 보이고 있다.

“체험홈에서 적응기가 필요하죠.”(자립생활가정 C)

“체험홈이 있어야지 자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고. 시설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게 없으니까.”(자립생활가정 T)

“일단은 체험홈을 거쳐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육도 받고 그래야 하는 거 같아요.”(자립생활가정 R)

“시설에서 미리 해주는 게 있겠지만은 여기 나와서 직접 뛰어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요. 기초적인 것은 시설에서 조금 했지만은 내가 나와서 살다보면 모든 걸 총괄해야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서 직접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자립생활가정 J)

“(시설에서 바로 자립한) 그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체험홈으로 온 경우를 봤어요.”(자립생활가정 O)

2) 자립생활체험홈 성과

시설에 거주했을 때와 비교해서 자립생활체험홈을 이용한 이후에 따라 나타난 변화에 대한 응답내용이다. 8가지로 분류된 자립생활체험홈의 성과는 심리내적변화인 ‘자신감, 자립의지, 자존감’의 부분은 자립역량척도¹⁶⁾의 측정영역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의 질적 성과에 해당한다. 이것 이외의 성과는 자립역량척도의 측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자립역량과 사회적 자립역량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1) 자신감 획득

지역사회에 대한 약간의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 형성은 지역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전환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사회 경험과 코디네이터 등의 지지,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은 이용자의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제가 주눅 들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눅 들었는데.. 너 주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고 많이 알려 주셨어요.”(자립생활가정 C)

“체험홈에 나오면 아무래도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지리 익히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용기가 생겼어요.”(자립 B)

“길 가다가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위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디를 어떻게 가야하는지 물어보아야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물어보고 내가 알 수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물어볼 수 있어요”(자립생활가정 J 배우자)

“예전에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말을 아주 잘해요.”(자립생활가정 K 활동보조)

16) 양적 척도인 자립역량척도에서는 측정대상인 장애인의 특성상 심리 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행동의 차원에서만 접근하였다. (제2장 참고). 심리 내적인 부분에 대한 양적 측정은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성과에 대한 측정은 면접을 통한 질적인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시설에 있을 때는요 솔직히 사회적 공포가 있었어요. 할 수는 있는데요. 시설에서는 누군가가 다 나를 보호해주고, 저를 대변해주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누군가가 해주고, 잘못돼도 시설 탓으로 돌리고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나오면 별거 아닌 거지만 다 제가 일일이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솔직히 겁났어요. 내가 모든 걸 떠맡아야 한다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센터도 혼자 못 갔어요. 코디 선생님이랑 같이만 가고. 말거는 게 부끄러워서·· 하다보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닥치니까 극복이 됐어요. 지금은 말을 너무 잘 걸어서 문제예요.”(체험홈 N)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쳐다보는 것도 싫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자립생활가정 O)

“자신감 향상과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료상담이 제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됐어요.”(자립생활가정 C)

“제가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얘기도 해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저거 하는 건데·· 나한테 엄청난 플러스가 됐죠.”(자립생활가정 J)

(2) 자립의지 향상

자립생활체험홈을 이용하면서 진정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서비스 이용 이후 자신감이 향상되어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꿈꾸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마치면 자립생활가정도 가고, 나중에는 진짜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체험홈 A)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낮잠 자려고 자립한 거 아니고, 자립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 꼭 혼자 살 거예요.”(체험홈 H)

“체험홈에서 빨래도 하고 하면서 일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체험홈 D)

“여기(체험홈) 끝나면 자립할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체험홈 S)

(3) 자존감 향상

수동적인 시설에서의 삶과 다르게 자신의 일상에 대한 통제권을 경험함으로써 자존감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삶을 영유하는 것은 ‘나도 비장애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이끌게 됨으로써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자존감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체험홈 관리자 E)

“그때는(시설에 있을 때는) 옷 사고 신발사고 하는 걸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하나하나 배우고 제가 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체험홈 F)

“시설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받아쫘었지만 체험홈에서는 다 사야 했으니까. 시장 보면서 먹고 싶은 것 사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이제 나도 똑같구나 (생각했어요).”(자립생활가정 L)

(4) 대인관계 확장 : 사회적 자립역량 중 ‘관계망 형성 및 확대’

시설에서 거주했을 때에 비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다. 시설에서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데, 전환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가 확대되었다. 장애인과의 관계 형성은 비교적 수월해 보였는데, 센터나 복지관 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나 시설에서 알던 친구를 지역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장애인과와의 관계형성 루트는 자원봉사자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제외하면 쉽지 않았다.

“센터 가깝고 모임 참여하고 사람들이랑 놀고”(체험홈 C)

“사회복지학과 지역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서 스터디도 하고 그래요. 주말에는 교회에 가요. 직장 가까운 데로. 거기에 친한 사람도 있어요.”(체험홈 H)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비장애인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친구들이랑 알고 지내면서 같이 놀게 되요.”(체험홈 N)

“비장애인들은 아니고... 시설 나와서는 김○○, 이○○... 센터 직원들이랑 친해요.”(체험홈 S)

(5) 취업욕구 증대 : 사회적 자립역량 중 ‘지역사회 참여’

시설에서 거주했을 때에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없었으나, 전환서비스 이용 이후에는 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수동적인 시설에서의 삶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에 있을 때는 돈 벌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했는데, 살다보니까 일하고 싶어요.”(체험홈 A)

“일이 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싶어요.”(체험홈 Q)

“제가 체험홈에 있을 때 일하고 싶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대소변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자립생활가정 L)

“정말... (자립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경험하고 느끼고 싶었고, 꿈꿔왔던 일이라 (두렵기보다) 기뻐요. 이제 일하고 싶어요.”(자립 B)

(6) 자기표현 증대 : 개인적 자립역량 중 ‘자기선택’

자립생활에서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전환서비스 이용에 따라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기선택에 대한 표현이 증대되었다.

“시설에 있을 때는 아무거나 주세요만 했는데 이제는 뭐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체험홈 A)

“시설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체험홈)에서는 주

변에서 나보고 선택하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자립생활가정 L)

(7) 일상생활관리능력의 향상 : 개인적 자립역량 중 ‘자기관리’

전환서비스의 대표적 운영 프로그램인 일상생활기술훈련을 통해 금전관리에 대한 개념 형성, 지역사회 이동 및 이용 등과 같은 일상생활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지적장애인이더라도 오래 반복하다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너무 잘하세요. 가르쳐주지 않은 환승도 척척 알아서 하고.”(체험홈 관리자 E)

“금전관리.. 많이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체험홈 H)

“한 달에 50만원, 20만원 해서 70만원 들어와요. 용돈이랑 생활비 빼고 저축해요.”(체험홈 S)

“지하철 타고 어디 가고 하는 건요. 솔직히 역을 다 안 외웠지만 타고 가고 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체험홈 N)

(8) 자유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다수의 장애인을 통제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간섭과 구속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반면 전환서비스 이용 시에는 자립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가 부여된다. 이 같은 경험은 이용자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사는 게 재밌어요.”(체험홈 S)

“아, 이게 드디어 천국이구나 생각했어요.”(자립생활가정 C)

“생수의 집에 있을 때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예배 드려야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체험홈 A)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제 밥도 제 마음대로 해먹고 싶고, 자유를 느끼고 싶고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아요.”(체험홈 H)

“시간과 자유·· 제가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좋아요.”(체험홈 Q)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시설에서는) 공동으로 써야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생활해요.”(체험홈 S)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너무 일상적인 것들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 그걸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체험홈 관리자 G)

3) 자립생활체험홈 문제점

자립생활체험홈의 안 좋은(있던) 점, 아쉬운(있던) 점 등의 질문형식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자립생활체험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룸메이트, 활동보조, 체험홈 코디네이터 등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정리되기도 하는데 운영상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1) 룸메이트와의 갈등

현재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운영은 한 주택에 2~3명의 룸메이트가 함께 거주하는 형식이다. 이로 인해 함께 거주하는 입주자의 성격이나 장애유형 등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룸메이트와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심신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어린애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몸도 불편한데 내가 밥도 다 챙겨줘야 먹고.”(자립 B)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애네 엄마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잖아요. 애네들한테 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당연히 누가 해주

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애네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혼자 생활을 한다고 말할까... 난 이게 참 궁금했어요.”(자립생활가정 T)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간섭이 심했어요.” (자립생활가정 C)

“좀 자잘한 일들은 저한테 막 시켜요.”(체험홈 N)

“우울증이 심했어요. 자립생활가정에 있는 입주자하고 너무 많이 안 맞더라고요. 밖에 나가있으면 전화로 몇 시에 들어오느냐 등 간섭이 너무 지나쳤어요.”(자립생활가정 T)

“여기(체험홈)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간질을 몇 번 하게 되더라고요.”(체험홈 F)

“지금은 아버지뿐이신 분이랑 같이 사는데, 이분이랑은 싸울 일도 없고 좋아요. 이분도 저처럼 트러블 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간섭 안하세요.”(자립생활가정 C)

“근데 (갈등관계에 있던) 룸메이트 친구가 나가자마자 점점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체험홈 관리자 G)

(2) 활동보조와의 갈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측면에서 활동보조와의 관계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활동보조와의 갈등 원인은 시설에서의 삶을 떠올릴 수 있는 지나친 간섭, 구속, 기싸움 등이다. 반면 이용자와 활동보조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 적절한 지지체계로 작용한 사례들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보조하고 트러블이 없어야 해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래서 일단 몸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자립생활가정 C)

“그분은 애 잘되라고 너무 심하게 가르치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워낙 활동보조 선생님이 교감선생님 같아서 그랬지.”(자립생활가정 C 활동보조)

“활동보조가 머리를 굴려요. 1년이 지나면 머리를 굴려서 이제 막 잘 안 나온

다고 하고. 그래서 안 나올 때도 있고 빼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요. 자립생활가정가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으니까.”(체험홈 Q)

“제가 활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무료봉사를 몇 번 시켰는데, 그 뒤로 쌓이고 쌓여서 그 때 한 번 폭발이 일어났는데 제가 말한 건 안 해줘요. 제가 해달라는 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자립생활가정 R)

“활동보조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사람은 활동보조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백날 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활동보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활동보조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씨의 경우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한 여덟 분 정도 바뀌었어요.”(체험홈 관리자 G)

“활보 선생님이 가장 고마워요.”(자립생활가정 L)

“○○이도 엄마 없고 그 언니도(활동보조2) 엄마가 없어서 서로 이해를 잘 하다보니까 엄청 잘 통한대요.”(자립생활가정 K 활동보조1)

“나중에 언니(활동보조2)랑 같이 나가서 살 거예요. (힘든 일 생기면) 혼자 있고 얘기 안할 때도 있는데, 언니한테 얘기하면 언니가 이해해줘요.”(자립생활가정 K)

(3) 체험홈 운영 형태의 차이 : 이용자 맞춤형 운영시스템 부재

현재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한 유형인 체험홈은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5개 운영사업자 및 코디네이터의 성향에 따라 ‘방임과 개입’ 사이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전환서비스 이용자에게 때로는 지나친 방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나친 개입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체험홈 운영 형태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전환서비스의 운영이 이용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체험홈에서 빨리 나온 이유는 특정 누구 때문에 좀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

요. 거기 코디 선생님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에서 나와서 잘 모르
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끼리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능력도 없고 활보시간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때는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불편해서 전화해도 오시지도 않고.. 대화도
안 이루어지구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겨내야 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
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자립생활가정 O)

“(코디네이터 상담은) 일주일 아니고,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 의무도 아니
어서 그냥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자립생활가정 R)

“상담 그런 거 안 해요. 동료상담도 없어요.”(체험홈 D)

“(체험홈에서 장보고 은행가고) 그런 거 연습 없었어요.”(자립 I)

“체험홈에서는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보체아 하기 힘들었어
요.”(자립 I)

“솔직히 여기 있으면서도 시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프로그램 머신으
로 돌고 있어요.”(체험홈 N)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너무 과할 때가 있어요. 과잉
보호를 넘어선? 내가 느끼기에도 약간 과한? 프로그램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전화를 세 네 번씩 하는? 보호
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서는 그게 감시라고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심한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아침 일
찍 한 8시쯤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있으세요. 너무 눈치가 보여요. 아침점
심저녁을 다 같이 있으니까요. 제가 뭘 해도 눈치가 보였어요.”(체험홈 N)

2. 자립생활가정 성과 및 문제점

1) 자립생활가정 성과

자립생활체험홈을 거친 후에는 지역사회 자립에 보다 가까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립생활가정의 성과 카테고리에 분류된 내용은 자립생활가정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지냈을 때에 비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동한 뒤에 나타난 추가적 변화’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1) 자신감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한 경험과 지역사회 자립에 한걸음 다가간 자립생활가정에서의 삶은 이용자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 갔다 온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거기서 일반인 친구들이 저를 잘 도와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그냥 겁도 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자립생활가정 C)

“자신감 생기고 이려는 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자립생활가정 나와서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1년 반)”(자립생활가정 C)

“원랜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많아졌어요. 불고기 브라더스 다니면서 제가 말 걸어가지고..”(자립생활가정 M)

“체험홈에 있을 때부터 많이 조금씩 (지역사회에) 나가다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랄까.. 용기가 생겨서 나가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두렵지 않아요.”(자립생활가정 L)

(2) 자기통제감 형성

체험홈에 비해 구속이 적고,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자립생활가정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경험하게 된다. 직접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자신

이 근로해서 번 돈으로 소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통제감을 경험한다. 자기통제감을 기반으로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여기(자립생활가정) 와서 좀 변하긴 했어요. 제가 제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되니까 많이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자립생활가정 R)

“이제는 우리가 직접 통장을 만지고, 카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나도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아요.”(자립생활가정 T)

“여기 있을 때까지는 전기세나 뭐나 이렇게 공짜로 누가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가 집을 얻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많이 저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자립생활가정 M)

(3) 대인관계 확대

개인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감과 자아통제감이 형성됨에 따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확대되기도 하고, 내 선호나 관심에 따라 소수이더라도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인다.

“인간관계도 넓어졌어요. 전에 비해서는 체험홈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시설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있으니까. 나와서는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니까··”(자립생활가정 P)

“제가 성격이 막 발이 넓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연락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 엄청 넓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건 있는 거 같아요.”(자립생활가정 O)

“원랜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많아졌어요. 불고기 브라더스 다
니면서 제가 말 걸어가지고··.”(자립생활가정 M)

(4) 갈등해소를 통한 심신안정

체험홈에서의 갈등으로 서비스 이동을 결심한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립생활가정에서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갈등 상황에서 벗어난 것도 큰 역할을 하였고, 체험홈에 비해 밀도가 낮고 자유가 확보되는 자립생활가정의 환경도 주요 영향요인이 되었다.

“체험홈에서는 다른 장애인 활동보조 때문에 힘들었어요. 또 하는 프로그램들
에 자기가 하지를 못하는데 해야 하고 몸을 써야하는데 못쓰고 이러다보니
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것에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엄청 안 좋았어요. 애가 옷에다가 막··
거기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환경 때문에 애가 많이 바뀌었죠. 성격
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여기 와서는 말을 너무 잘해··”(자립생활가정 K 활
동보조)

“(체험홈 룸메이트가) 오만가지에 간섭이 많았어요. 일단 스트레스를 너무 많
이 받다보니까·· 빨리 자립생활가정으로 가고 싶다고 신청했어요. (자립생활
가정으로) 와서는 예전에 비해 살도 찌고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자립생활
가정 C)

“체험홈에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랑도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도 엄청 싸웠어요. 지금은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자립생활가정 O)

2) 자립생활가정 문제점

자립생활가정의 문제점은 ‘현재 자립생활가정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 보완 했

으면 하는 점'과 더불어 자립생활가정의 서비스 목표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이다.

(1) 명확한 목표의 부재

시설에서 바로 자립을 해야 하는 체제로 자립생활체험홈이 없다면 어떠할까에 대한 질문에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해 교육과 훈련의 체험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자립생활가정이 없다면 어떠할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립생활가정이 없으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혹은 '생각해 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즉, 현재의 자립생활가정은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여 그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보다 부수적 역할인 주거지 제공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쎄요.. (자립생활가정 서비스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시설로 돌아가야 했을 것 같은데..”(자립생활가정 J)

“체험홈은 뭔가를 배우는 그런 곳인데.. 자립생활가정은 그냥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거 같아요.”(자립생활가정 O)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체험홈 끝나고 이게(자립생활가정) 없었다면 살 곳 문제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살 집 걱정이 데..”(자립생활가정 C)

(2) 사후관리시스템의 부재

자립생활가정이 자립생활체험홈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코디네이터의 꾸준한 관심과 함께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립생활가정 완료 이후의 관리 시스템이 없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좀 겁이 나는 건 계속 혼자 생활을 해야 하고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준다고.. (코디네이터 없이) 그러니까 겁이 나요.”(자립생활가정 T)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재단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

데 나가면 이런 게 정말 끝인지 궁금해요. 걱정되고··”(자립생활가정 O)

(3) 적절하지 못한 거주환경

일부 자립생활가정의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건강 및 삶의 질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반지하 주택이라 곰팡이가 슬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있다. 한편 주택 구조상 방 크기의 심한 차이로 인해 이용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반지하 이다보니) 조금 비오고 그러면 곰팡이 슬고 그래가지고··”(자립생활가정 L)

“지금 집에서 물이 새요. 고쳤는데 또 새요.”(자립생활가정 M)

“○○이가 나가고 다른 사람 왔었는데, 이 방이 너무 좁으니까 살 수 없다고 (나갔어요).”(자립생활가정 K)

3.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립역량’

1) 개인내적 (심리적) 자립역량

지역사회 자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각하는 ‘자립 역량’의 상당부분은 심리적 영역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립역량척도는 심리내적 부분의 측정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자립역량척도 영역과의 대응은 어려움이 있다.

(1) 자신감

전환서비스 이용자의 생각으로 지역사회자립에 있어 필수요소로 자신감을 꼽았다.

“제일 중요한 게 돈과 자신감이예요.”(자립생활가정 C)

“자신감이 필요해요.”(체험홈 H)

“음··· 자신감이요.”(자립생활가정 J 배우자)

“자신감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체험홈 N)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죠.”(자립생활가정 P)

(2) 용기

전환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감과 유사한 경로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일 필요한 게 용기죠.”(자립 B)

“제일 필요한 건 용기요.”(체험홈 Q)

“글쎄요··· 그냥 용기?”(자립생활가정 O)

“용기도 필요하고, 긴장감을 많이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는 진짜 무서운 곳이니깐요.”(자립생활가정 R)

(3) 자립의지

지역사회 자립의 경험자로서 시설생활에 비해 상처받을 일이나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굽혀지지 않는 자립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지가 필요해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립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자립생활가정 J)

“다른 것보다 의지가 있어야 되요. 의지. 솔직히 의지가 강해도 막상 경험하고 나면 의지가 팍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고 해야 할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엮이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요. 상처도 있고 공포 같은 거 많이 느껴요.”(체험홈 N)

2) 개인외적 자립역량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심리적 차원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자립역량척도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관리영역 그 중에서도 경제생활관리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머니(money)예요”(자립생활가정 C)

“또 금전도 필요해요.”(자립 B)

“돈이 있어야 돼요”(체험홈 D)

“자립할 때 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녀야 돈이 생기니까.”(체험홈 H)

“돈··!”(자립생활가정 K)

“돈이 필요해요.”(체험홈 S)

“경제개념”(자립생활가정 O 룸메이트)

“일단 일을 해야 해요. 돈을 벌어야지 서울은 비싸니까.”(자립생활가정 M)

4. 성과 영향 요인

1) 지지체계

일반적으로 적절한 지지체계의 형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정은주, 1998),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며(나동석, 1992),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면접에서도 가족과 배우자를 통한 지지가 자신감 형성, 자립의지 고취 등 심리적 차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가족이나 배우자는 항상 지지체계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방해체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1) 가족

기본적으로 가족의 존재, 지지와 응원은 이용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어 지지체계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가족의 의견이 이용자와 상반되어 대치가 될 경우에는 방해체계로 변모하기도 한다.

“동생은 의지돼요. 근데 부모님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가족이 진짜 필요할 때 있어야지 가족인 거 같아요. 피가 이어져 있어도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들어요.”(체험홈 N)

“자립하는데 제일 걸림돌은 엄마예요. 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셔서 좀 싸웠어요.”(자립생활가정 C)

“아빠를 찾았을 때 처음엔 어색했어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다가 만난 거니까.. 근데 예전에 시설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오면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아빠 찾고 나서 아빠가 시설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아바랑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자립생활가정 P)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의 가슴에 맺힌 것들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고, 아바랑 가족이 있어서..”(자립생활가정 이용자 P 가족)

“동생이 둘 있는데, 애네 없으면 난 못살아요. 관리비는 동생이 내 주고, 여동

생이 반찬을 해 나르고 하면서 챙겨주고 있어요. 확실히 가족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고 해요.”(지역사회자립 B)

(2) 배우자

배우자의 존재는 자립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도 기여하며 서로에게 좋은 지지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역시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관계형성에 따른 지지체계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해체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생각은 해봤는데, 아무래도 혼자 나가서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또 판단력이 별로 없어서,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많아도 어떻게 나 혼자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 선생님들은 시설에서도 다 하니깐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겁나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도전을 했어요.”(자립생활가정 J 배우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천하고 싶어요. 혼자 나와서 생활하는 것보다 둘이 서로에게 의지되고·· 훨씬 나아요.”(자립생활가정 J)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때, 막 장애인이라고 놀려대면·· 씩씩하고 슬피요·· 저녁에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좀 풀려요.”(자립생활가정 L)

2) 취업

근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증가, 경제생활능력 향상에 따른 자아통제감 증가, 대인관계의 확장, 사회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전환서비스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정 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근로는 피로감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취업해서 다른 때보다 좀 좋았어요.”(체험홈 D)

“취업을 안했으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못쓰고, 진짜 내가 아파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이 없었으면 사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자립생활가정 T)

“취업을 하면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밝아졌어요. 왜냐면 직장생활을 하면 다양한 사람하고 부딪혀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 같아요.”(자립생활가정 P)

“일하는 게 좀 힘들어도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리고 경험을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자립생활가정 R)

“원랜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많아졌어요. 불고기 브라더스 다니면서 제가 말 걸어가지고..”(자립생활가정 M)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떨리고 너무 아파요. 나중에는 손도 막 떨려요. 막 간질 하듯이 떨려요. 일이 되게 힘들어요.”(체험홈 D)

3) 장애유형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특성은 전환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적장애와 중도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지적장애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에 비해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점과 자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특히 지지체계가 결핍되었을 때, 좌절을 쉽게 경험하고 회복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꾸준한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기간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면접 결과는 지적장애인의 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유영준 외 2인(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너그럽게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필요해요.”(체험홈 관리자 E)

“힘든 일 있어도 이야기 안하고 그냥 혼자..”(체험홈 D)

“나 혼자 풀어요. 왜냐면요 내가 나누면요. 이거를 누구한테 진심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요.”(자립생활가정 T)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한테나 선생님들한테.. 자기이야기를 내가 한 것처럼 말해서 내가 이상한 애가 됐어요.”(체험홈 D)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누나 만나서 얘기해요. 그럼 많이 위로가 되요.”(자립생활가정 C)

“애(K)한테 활동보조가 두 명인데, 나 말고 1살 언니가 있는데, 둘이 너무 잘 지내요. K하고 가정환경도 비슷하다보니까 서로 이해를 잘하고 잘 통한다고요. 서로 위안이 많이 되나봐.. 나중에 자립생활가정 나가서는 둘이 같이 살 거래요.”(자립생활가정 K 활동보조)

“지적 장애인분들의 문제는 관계랑 정보의 취약성이예요.”(체험홈 관리자 E)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욕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화를 푸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가가지고 애들 괴롭히고 온대요. 폭력성이 있고, 식탐도 문제예요.”(체험홈 H 코디네이터)

“지적 장애인들은 자기표현에 능하지가 않아서 속으로 얘기하고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혼자 속으로 ‘저럴 거야, 맞아 그래’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체험홈 관리자 E)

“동생이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는데 은행가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는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걱정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나는 나한테 진짜 소중한다면 경찰이나 찾아가서 나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표정도 하나 없고.”(자립생활가정 T)

(2) 중도장애

중도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 장애인전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자립욕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을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는 극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20세 이후에 장애가 생기신 분들, 특히 지적으로 크게 손상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립욕구나 이런 게 엄청 강해요. 하고자 하는 욕구도 그렇고요.”(IL센터 소장)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는 싫어요. (혼자 사는 게) 두렵기 보다 더 좋았어요.”(체험홈 S)

“중도장애인들은 또 화가 많아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사소한 것조차 못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확 나요.”(IL센터 소장)

“그냥 내가 몸을 좀 움직이면서 그나마 장애를 인정해야지 하면서도 가끔은.. 가끔은 아니다 싶어요.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지금도 우울증약을 먹고 있어요.”(자립 B)

“어차피 장애를 입었는데 비록 사고로 그랬지만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우울해하고 있어봐야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고, 사는 거 즐겁게 살자.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그렇게 살자고 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살자 그런 식이죠.”(자립생활가정 J)

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발전방안

1.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차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기간의 융통성 부여

현재는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이용가능기간이 2년, 5년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1절의 체험홈 문제점에서 언급하였듯이 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기간 채우기식으로 체험홈에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편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체험홈의 목표를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서비스 이용기간 제약에 따라 자립생활가정으로 이전해야 하기도 한다. 한편 체험홈에서의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생활가정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 이용기간은 총 7년으로 확정해 두되 개별 이용자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서비스별 이용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돈 관리는 선생님이 관리하시고 있고요. 선생님이 용돈주시면 그걸로 잘 써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체험홈 A)

“저처럼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몸 움직이는 거 외에 나머지 다 정상인 사람들은 1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IL센터 소장)

“저는 체험홈에서 배우는 거 1년이면 충분해요. 코디선생님도 하루빨리 자립생활가정 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체험홈 H)

“더 배우고 싶어요. 아직 부족해요.”(체험홈 R)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솔직히 2~3년은 필요합니다. 아니 3급은 괜찮을 수 있는데, 1~2급은 진짜 필요해요.”(자립생활가정 C)

“제가 간다고 하면 갈 수는 있는데요. 재단 쪽에서 연락이 와서 얘기해 주신 게 원하면 갈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체험홈에 있으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것 조금이라도 저금을 더 해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수금을 해서 다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체험홈 N)

이를 위해서는 전환서비스별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서비스별 목표달성 여부에 근거하여 서비스 이동이 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체험홈의 목표 및 측정
 - 목표 : 지역사회 적응
 - 측정 : 자립역량척도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 여부 검증

- 자립생활가정의 목표 및 측정
 - 목표 :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역량 증대
 - 측정 :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개별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달성여부로 성과 검증

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체험홈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체험홈별 차이(방임 혹은 지나친 개입)로 인한 갈등은 운영사업자 및 코디네이터의 성향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개별적 특성이나 상황, 욕구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갈등이기도 하다.

기능이나 수행능력이 뛰어난 이용자에게 너무 쉬운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실시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일상생활 적응도 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미래계획에 대한 과업도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장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도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이용자의 장애유형 · 수준 · 기능 ·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및 운영상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자별 맞춤형으로 계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보완책으로 체험홈 운영사업자의 평가시스템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는 6개월 전에 계획한 프로그램을 향후 6개월 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초기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운영내용이나 형태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의 운영사업자 평가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는 일이며, 이에 대한 풍부한 예시와 적용 매뉴얼 제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건 다를 수 있어요. 본인 욕구랑 전문가 판단 하에 필요한 것들을 결합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를 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봤어요. 근데 활동보조 선생님이 식사는 거의 다 준비해주시잖아요. 물론 그냥 프로그램으로 일회성으로 몇 번 할 수는 있는데, 활동보조 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이라든지 먹고 싶은 걸 사먹는 법,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먹고 싶은 것을 표현하여 먹는 법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욕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체험홈 관리자 G)

“제가 초기 때 했던 프로그램들이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다 도움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자립생활가정 O)

“거기(체험홈)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뭐

를 하라고만 하고. 제 경우는 제가 시설에서 나와서 직업적으로 막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한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지금 당장 화장실 가고 먹고 씻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는 제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솔직히.”(자립생활가정 O)

“나는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은행에 저금하는 거, 빼는 거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럼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것도 한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거든요. 수준에 관계없이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단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은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것들만 있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하는 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요. 너무 싫어요. 다른 분들도 다들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험홈 N)

3) 표준화된 서울시 전환서비스 제공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위탁체제로 운영 중인 체험홈의 경우, 운영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크게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 전환서비스만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서울시 전환서비스만의 서비스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비로는 높은 역량의 전문가 섭외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높은 역량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개별 체험홈에 서비스 파견을 보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장애인전환서비스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역량의 배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용자의 개별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당영역의 전문가 섭외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동료상담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걸 대체로 상담 위주예요. 그런데 인권강사는 오셔서 살아온 과정이랑 경험을 다 같이 들으면서 대화로 풀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풀어주시고. 인권에 대해서 거부감 있게 설명하지 않고 녹여서 접근해서 반응도 좋았어요. 근데 강사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 사업비로는 터무니없어요. 재단 쪽에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체험홈 관리자 G)

4) 성과 강화 프로그램의 도입

서울시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천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택 구입에 관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자립한 선배와의 만남’인데, 실제로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고 있는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은 ‘체험홈 이용자 간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자립역량 중 ‘대인관계 형성 및 확대’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여기서 나간 다음엔 주거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전세든 월세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집을 본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닦했을 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집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자립생활가정 O)

“6월인가에 집, 주택 구입교육에 관한 거 받았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체험홈 H)

“자기 몸에 대해서 소중한 거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배웠었는데, 그걸 너무 유치했어요. 특수학교이다 보니까·· 성교육 같은 거 해줬으

면 좋겠어요.”(체험홈 D)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성교육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 이니까·· 우리는 애기를 안 낳기로 했으니까·· 예전에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나요.”(자립생활가정 L)

“지역사회에 혼자 살고 계시는 중증장애인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나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게·· 차라리 그게 저는 더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도 살고 있구나. 이런 거에 놀라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랑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 도움 될 때도 있고.”(자립생활가정 O)

“자립생활센터 간의 교류가 좋더라고요. 체험홈 간의 코디선생님끼리 교류라든지 아니면 체험홈 이용자간의 교류라든지. 코디선생님들끼리 만나면 정보교류 차원에서 좋고, 체험홈 이용자끼리 만나면 시설에서 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계속 네트워크를 넓혀가서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다녀와서 친구들 만난 이야기를 막 하고·· 프로그램 할 때, 다른 센터 방문한다든지 하면 그 센터에서 옛날에 시설에서 만났던 사람을 만난다든지, 거기 선생님들이랑 연락하면서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넓혀가게 되더라고요.”(체험홈 관리자 G)

5) 갈등 개선방안 1. 활동보조와의 관계형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4장의 1절 내용분석 2. 자립생활체험홈 문제점에서 다루었듯이 체험홈의 핵심문제는 관계 속의 갈등이었다. 이 중 활동보조와의 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동보조와의 관계 형성 및 정보에 대한 교육’을 제안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행동 및 선택의 판단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의 목적 및 관계형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정보를 좀 줬으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자립생활가정 O).

6) 갈등 개선방안 2. 코디네이터 및 활동보조 지원

체험홈 코디네이터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개별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단편적인 교육 이외에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슈퍼바이징 프로세스가 있으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활동보조 대상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활동보조 자격증 발급을 위한 기초교육으로는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적 욕구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이용자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른 활동보조 교육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복지재단 측에도 상담을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복지재단 측 사람들도 비장애인이고 체험홈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조언을 해주되 딱 지침 수준의 조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이 안 될 때, 진짜 전문가들과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체험홈 관리자 G)

“거기에서(체험홈)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뭐를 하라고만 하고. 제 경우는 제가 시설에서 나와서 직업적으로 막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한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지금 당장 화장실 가고 먹고 씻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는 제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솔직히.”(자립생활가정 O)

7) 갈등 개선방안 3. 신중한 룸메이트 배치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운영 체제는 한 주택에 2~3명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에 룸메이트 체제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들 간의 갈등 역시 쉬이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갈등수준이 심신 불안정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룸메이트 배치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면접 대상자들의 룸메이트 배치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편이다.

“지적 장애인분들이랑 지체 장애인 분들은 같이 섞어서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체험홈 관리자 E)

“언니를 하나 끼우면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는 힘든 걸 겪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언니가 있어야 되고 이 동생은 언니한테 의지할 수 있고.”(자립생활가정 T)

“장애유형도 관계가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격차이가 큰 것 같아요.”(체험홈 관리자 G)

8) 전환서비스 이후의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 이후에 지역사회 자립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후관리 역시 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때만큼의 관리와 노력을 들이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의 형성은 필요해 보인다.

9) 체험홈 운영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서울시 자립생활체험홈은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거주환경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사업비 부족 혹은 집주인의 반대로 불편한 주택구조로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설에서 나와 처음 자립을 경험하는 체험홈은 이용자의 초기 자립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체험홈 운영사업자 선정 시에 체험홈 주택환경 및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문지방턱)가 (휠체어에) 걸려요. 문 있잖아요. 들어오는 문이 좁아서 자꾸 부딪혀요. 화장실도 문턱이 있어서 못가요. 안가고 있어요. 화장실 물도 안내려가고. 또 부엌이 설거지하는데 물이 새요. 그래서 다 썩었어요.”(체험홈 Q)

“집이 생활하기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체험홈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부터 의지가 반은 죽어요. 이렇게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무슨 의지를 어떻게 불태우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체험홈 N)

“집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구조가 일단, 자립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생길 수 있게. 그래야지 뭔가 바깥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는 원동력이 생겨요.”(체험홈 A)

2. 서울시 차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절차상 자립준비 지원

지역사회에 나와서 초창기 자립의지를 가장 취약하게 하는 요인은 ‘시설에 비해 현격히 불편을 느끼는 일상’일 것이다. 활동보조, 수급비와 같은 지원체계의 공백은 이용자로 하여금 불안과 불편함을 가중시키게 된다. 현재 행정절차상 시설 거주 시에는 활동보조의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나와서 장애재판정을 받고 활동보조 및 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3~6개월 동안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체계의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립 예정자의 경우, 사전 자립준비를 인정하여 거주지가 시설로 되어있을지라도 1~2달 전에 지원체계의 신청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 선생님을 구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판정받고 이렇게 재판정하면 등급심사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기간이 활동보조 없을 때는 저밖에 없잖아요. 계속 체험홈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씨가 불안한 심리 상태도 있었고, 계속 간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체험홈 관리자 G)

2) 사전 자립교육의 필수화

위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사전준비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차원의 자립준비도 필요하다. 때로는 자립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룸메이트와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탈시설 패러다임에 의한 제도적 유도가 낳은 폐해일 수 있는데, 보완을 위해 시설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사전 기초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자립 희망자 선정에 여과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다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립해서 나오면 해방이구나. 누가 간섭안하니까 좋겠구나. 하지만 나오면 닥치는 일이 너무 많죠. 우선 이제 혼자 겪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시설에 있을 땐, 밤에 아파도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지금은 혼자 해결을 해야 하니까 많이 걸리더라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까.”(자립생활가정 P)

“이제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는 애들은 교육을 받아요. 나와 보니까 시설에서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체험홈 H)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시설에서도) 생각 없이 내보내고, 애

들은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혼자 생활을 한다고 말을 했을까. 난 이게 참 궁금했어요.”(자립생활가정 T)

3) 수급과 취업의 상쇄 관계 보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수급 장애인이 안정적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근로임금이 일정수준이상이면 탈 수급을 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임금과 수급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 더러 주 5일 근무 시 건강악화의 문제도 발생한다. 즉, 근로로 인한 임금 상승분에 따른 수급비 감소 및 추가 병원비를 고려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발생한다. 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근로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제도적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임금 증가에 따른 수급비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생략한다. 차선으로 현재의 제도 안에서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대안은 ‘장애인 파트타임 고용의 활성화’이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이용자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제생활능력의 향상, 자기통제감 및 소속감 증가, 대인관계 확장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일하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 안하고 있어요.)”(자립생활가정 L)

“일을 하게 되면 사실 5일 내내 나가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그 남짓이라고 하는데, 100만원을 받아도요 수급자가 아니게 되면 병원에 가도 돈 많이 들고,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게 더 많아요.”(자립생활가정 O)

“수급자는 일을 하면 못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알바니까···(괜찮아요.)”(자립생활가정 R)

“가끔 불고기브라더스 점주님한테 전화 오면 나가서 찬 푸는 거 해요.”(자립

생활가정 M)

4) 24시간 응급대기 시스템 마련

현재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시스템이 있으나, 이로는 24시간 보장이 어렵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책, 즉 응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항상 장애인들이 말하는 거지만 활동보조 제도가 좀 그래요. 저희는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언제라도 긴급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항상 있지 않다는 거·· 밤에 새벽에 아플 수 있는데 그걸 개인적인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안되는 게 불편해요.)”(자립생활가정 O)

“예전에 시설에 있을 땐 밤에 아파도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지금은 혼자서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게 참 많이 그렇더라고요.”(자립생활가정 P)

3. 인식적 차원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비해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아직 여전하다. 김성희 외 2인(2004) 연구 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장애인들은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도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을 꼽고 있다(최지선 외 1인, 2010). 캠페인, 광고, 드라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인식 개선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생각도 없냐고 하면서 하긴 장애인이 생각이 없는 건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나 암전히 있지,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나 먹고 시설에서 짱 박혀 있지 뭘 이렇게 나와서 돌아 다니냐고. 다리병신인데 눈

깔도 병신 됐냐고. 이런 분들이 10명 중 세 분 정도 계세요.”(체험홈 N)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러 취급 받으려고 체험홈에 나왔다. 차라리 시설에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체험홈 N)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때, 막 장애인이라고 놀려대면 씁쓸하고 슬퍼요.”(자립생활가정 L)

“좋기도 하지만 사람들 많은데 가면 상처가 될 때도 많아요. 몇 살이나 그런 거 막 묻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 입장은 전혀 모르니까. 엄마가 있느냐 활동은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상처를 받을 때는 오히려 안 나가려고 할 때도 많아요.”(자립생활가정 K 활동보조)



제 5 장 결론

1. 제언
2. 함의 및 한계

1 제언

연구결과를 통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 측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한계를 수용해야 했다. 향후에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층 명확해진 목표와 지향점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립역량척도의 활용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 시부터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도출된 이용자의 자립역량 변화량은 서비스의 효과성 입증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더불어 축적된 측정 자료는 개인별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장애유형·성별·장애정도·개인적 특성 등에 따른 자립역량 증대효과를 분석할 때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서비스 성과 증진방안 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환서비스 이동 및 전환의 근거로 자립역량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서비스 내에서 구체화된 목표 달성 시에 서비스 이동 및 전환이 가능해지는 체계라면, 자립생활체험홈의 목표인 ‘지역사회 적응’의 기준을 자립역량척도의 일정 수준에 두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통한 서비스 진행은 보다 체계적인 전환서비스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의 장애인전환서비스는 그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장애유형을 배려한 지원체계로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센터들이 신체장애인의 자립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도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립목표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지적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의 수준이나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보호 체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체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학계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에게 자립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지받으며 삶의 일정 부분이라도 스스로 통제하는 방안을 넓혀주는 것일 수 있다고 언

급한 바 있다(비마이너, 2013.11.20). 고로 지적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자립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자립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4장의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중 일부분은 차기년도부터 반영이 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전환서비스별 이용기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는 자립생활체험홈 2년, 자립생활가정 5년으로 서비스별 이용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 서비스 이용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두되 개인별 기능과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즉, 자립생활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1년을 이용하고도 자립생활 가정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2년을 이용하고도 체험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용자의 경우, 체험홈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기간이 지체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이외에도 자립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장애재판정, 활동보조 및 수급신청 등) 신청시점의 유연성 확보, 거주지 확보 등의 개선방안에 있어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합의 및 한계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유목화를 통해 서비스 목적 및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성과 개념 및 모형을 도출하였다. 논리모델에 근거한 성과 모형에 따라 장애인전환서비스 체계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위 모형에 근거하여 장애인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서비스의 성과를 객관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자립역량척도'를 개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본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더불어 향후 서비스 성과측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환서비스 이용자 및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척도를 측정하였고, 서비스 운영이 야기한 이용자의 변화로 장애인전환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그동안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 및 입·퇴거자 현황 등의 실적으로 성과를 보였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평가라고 보인다.

넷째, 양적인 척도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은 질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립역량척도는 심리내적 영역의 자립역량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척도로 측정하지 못하는 서비스 성과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통해 심리적 측면에서의 성과 뿐 아니라,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였다.

이어 본 연구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자립역량척도의 타당도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는데, 향후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환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준시점의 초기 측정값에 비해 변화한 차이를 살펴야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유사실험설계를 구상하였다. 보다 정확한 성과추정을 위

해 향후에는 탈시설 시점에서부터 자립역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척도 제작(그림 등의 활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장애인전환서비스는 장애유형별로 목표를 달리 설정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에 따른 성과개념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립역량척도는 장애유형별로 표현의 난이도로만 차이를 두어 이해의 용이성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동일 개념을 측정함에도 다양한 도구의 활용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척도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선진. 2005.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 모델 구축.』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53-274.
- 김경미. 2009.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경험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51-182.
- 김경혜. 2004.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기반 조성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동기. 2004.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동일 · 김언아. 2003. “장애 학생의 자기결정과 전환 성과.” 『장애와 고용』 13(3): 54-68.
- 김미경 · 박경혜 · 윤정아 · 국은주. 200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자기평가지표 개발과 평가결과.” 『재활복지』 9(1): 141-166.
- 김성희 · 변용찬 · 박성민. 200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김순곤. 2002.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권 · 조인수 · 문태형 · 김혜경. 2000. “발달지체청년을 위한 자기결정능력검사의 표준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39(2): 99-126.
- 나동석. 1992.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활용에 관한 연구. 재활재단 논문집.
- 남연희 · 김영삼. 2005. “지체장애인의 자립도와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9(1): 81-110.
- 박경수 · 이채식 · 이형렬 · 이세영 · 박현주 · 박영미. 20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고용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박선아 · 김성한. 2009.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사회과학연구』 20(3): 107-127.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선아. 2011.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평가척도 개발 연구.” 『재활복지』 15(4): 129-157.
- 박수경. 2006. “지체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관련 요인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3(1): 91-110.
- 박수미 · 정기선 · 김혜숙 · 박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국. 2010.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7(3): 45-67.
-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15(1): 69-94.
- 방명애. 2007. 『자기결정기술 활동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변소현. 1998.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숙미. 2001.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실천전략.” 『인문사회과학연구』 4: 91-108.
- 양옥경 · 김미옥. 1999.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보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엄정금. 2003. “주거시설 정신지체인의 적응행동 연구: 주거 및 지역사회 적응행동검사 적용.”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혜경. 1998. “장애인 자립생활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3(1): 39-63.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오혜경. 2000.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리뷰』 5(0): 53-72.
- 우주형. 200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제도화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261-281.
- 유영준 · 임종호 · 진혜경. 2008.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지지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2(1): 115-137.
- 윤재영. 2010.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자립생활센터 이용장애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달엽. 1997. 『재활과학론』 대구: 형설출판사.
- 이서윤. 2010.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성 분석: 취업, 임금, 재실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익섭 · 김경미 · 윤재영. 2007.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9(2): 197-222.
- 이익섭 · 김동기 · 이한나. 2007. “자립생활서비스이용과 지역사회참여 및 고용의 관계와 역량강화의 매개효과.” 『한국직업재활학』 17(1): 5-24.
- 엠마우스복지관. 2003. 정신지체그룹홈. 엠마우스복지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장애와 차별-장애인인권침해에 관한 장애인 여론조사.
- 정은주. 1998. “지체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선 · 손주영. 2010. “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2(1): 35-5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한국장애인인권백서』
- 황보옥. 2005.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Cowger, C. D. 1994. “Assessing client strengths: clinical assessment for client empowerment.” *Social Work* 39(3): 262-268.
- DeJong, G.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s,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University Centers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jong, G., A. I. Batavia., and L. B. Mcknew. 1992. “The independent living model of Personal Assistance in national long-term-care policy.” *Generations* 16: 89-95.
- Dunlap, W., and D. Sands. 1987. “Development of a set of instruments to assess independent living skills.” *Journal of Rehabilitation* 53(1): 58-62.
- Gignac, M. A., C. Cott., and E. M. Badley. 2000. “Adaptation to chronic

- illness and disability and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independence and dependenc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6): 362-372.
- McLaughlin, J. A., and G. B. Jordan. 2004. “Using logic models.”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2*: 7-32.
- Nosek, M. A. 1998. “Independent living.”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107-141.
- Savaya, R. and Waysman, M. 2005. “The logic model: A tool for incorporating theory in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9(2): 85-103.
- Schalock, R., and G. S. Bonham. 2003. “Measuring outcomes and Managing for Resul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6: 229-235.
- Segal, S. P., and V. Aviram. 1978.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A study of community care and social integration*.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ehmeyer, M. L., and K. Kelchner. 1995.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 Arirlington, TX: The Arc National Headquarters.
- Westaway, M., P. Rheeder., D. Vanzyl., and Seager. J. 2003. “Interpers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of patient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health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 health care* 15(4): 337-344.



부 록

1. 자립역량척도(지체장애인용)
2. 자립역량척도(지적장애인용)

No.	1	1		
-----	---	---	--	--

자립역량 척도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이 척도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과정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전환서비스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립역량 척도를 개발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오니,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이 서 운

이	름	
이용	증인	체험

1. 귀하의 생활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문 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상생활(예. 세수, 양치질, 화장실 이용, 식사, 청소, 빨래, 옷 갈아입기, 이동 등) 기술을 알고 있다.				
2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예. 길을 잃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등),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예. 112 전화 등).				
3	매월 생활비(예. 근로소득, 수급비, 연금, 수당 등)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예. 청약저축, 세금, 용돈 등) 알고 있다.				
4	지역사회에 어떤 단체나 모임(예. 장애인단체, 종교모임, 복지관 동아리 등)이 있는지 알고 있다.				
5	의사소통기술(예. 경청, 공감, 말하기, 적절한 반응 등)을 알고 있다.				
6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주변사람의 조언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다.				
7	내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예.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집회 참여 등) 알고 있다.				
9	내가 결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10	내게 필요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1	(주변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예. 세수, 양치질, 화장실 이용, 식사, 청소, 빨래, 옷 갈아입기, 이동 등)을 어려움 없이 수행한다.				
12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				
13	매월 계획한 예산 내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1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단체나 모임(예. 장애인단체, 종교모임, 복지관 동아리 등)에 참여한다.				
15	의사소통기술(예. 경청, 공감, 말하기, 적절한 반응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16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주변사람의 조언을 듣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내 판단에 따른다.				
17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18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세미나 · 토론회 등(예. 공청회, 집회 포함)에 참여한다.				
19	내가 결정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20	수집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				

연 번	문 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예. 현관문/창문 잠그기, 가스레인지 소화 등)을 알고 있다.				
22	내 생활에 큰 힘이 되는 주변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이 있다.				
23	향후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24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예. 바자회, 축제 등)의 종류를 알고 있다.				
25	다른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과 어울리는 방법(예. 여가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을 알고 있다.				
26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선택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27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는 거절해야 함을 알고 있다.				
28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투표나 선거가 있음을 알고 있다.				
29	내 삶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				
30	지역사회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31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한다(예. 현관문/창문 잠그기, 가스레인지 소화 등).				
32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33	향후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을 한다.				
34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예. 바자회, 축제 등)에 참여한다.				
35	다른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과 자주 어울린다.				
36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내가 결정한다.				
37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는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표현한다.				
38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다.				
39	내 삶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에 따라 생활한다.				
40	(주변의 도움으로) 내게 필요한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주민센터, 복지관 등) 을 적절히 이용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

No.	1	2		
-----	---	---	--	--

자립역량 척도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이 척도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과정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전환서비스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립역량 척도를 개발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오니,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이 서 윤

이	름	
이용	중인	체험홈

1. 귀하의 생활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문 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상생활(예. 세수, 양치질, 화장실 이용, 식사, 청소, 빨래, 옷 갈아입기, 이동 등) 기술을 알고 있다.				
2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예. 길을 잃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등), 누구에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예. 112 전화 등).				
3	매월 생활비(예. 급여, 연금, 수당 등)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예. 청약저축, 세금, 용돈 등) 알고 있다.				
4	지역에 어떤 단체나 모임(예. 종교/운동모임, 복지관 동아리 등)이 있는지 알고 있다.				
5	의사소통기술(예. 잘 듣기, 말하기, 적절한 반응 등)을 알고 있다.				
6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주변사람의 말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7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내 권리와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예. 관련 교육, 세미나, 토론회 참여) 알고 있다.				
9	내가 결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10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1	주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예. 세수, 양치질, 화장실, 식사, 청소, 빨래, 옷 갈아입기 등)을 한다.				
12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				
13	매월 용돈 안에서 아껴 쓴다.				
14	지역의 단체나 모임(예. 종교/운동모임, 복지관 동아리 등)에 참여한다.				
15	의사소통기술(예. 잘 듣기, 말하기, 적절한 반응 등)을 잘 사용한다.				
16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주변사람의 말보다는 내 판단에 따른다.				
17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18	내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인권교육 · 세미나 등(예. 공청회, 토론회, 집회 등 포함)에 참여한다.				
19	내가 결정한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				
20	필요해서 얻은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연 번	문 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예. 현관문/창문 잠그기, 가스레인지 소화 등)을 알고 있다.				
22	내 생활에 큰 힘이 되는 다른 사람(예.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이 있다.				
23	앞으로의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24	지역에 어떤 행사(예. 바자회, 축제 등)들이 열리는지 알고 있다.				
25	다른 사람(예.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과 어울리는 방법(예. 여가생활, 사회활동 등)을 알고 있다.				
26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				
27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거절해야 함을 알고 있다.				
28	내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투표가 있음을 알고 있다.				
29	나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				
30	지역의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31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한다(예. 현관문/창문 잠그기, 가스레인지 소화 등).				
32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예. 장애인, 이웃, 친구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33	앞으로의 자립생활을 위해 저축을 한다.				
34	지역의 각종 행사(예. 바자회, 축제 등)에 참여한다.				
35	다른 사람(예. 동료 장애인, 이웃, 친구 등)들과 자주 어울린다.				
36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내가 결정한다.				
37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다고 표현한다.				
38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다.				
39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한다.				
40	(주변의 도움으로) 나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주민센터, 복지 관 등)을 적절하게 이용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성과 측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3-34

발행일 2013년 10월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임성규
편집인 송성숙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전 화 02-2011-0400
팩 스 02-2011-05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예림프로세스(02-2263-9217)
I S B N 978-89-6298-247-3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